朝鮮日報 夕刊
一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選定刊行物◆
『光明』(每月一回發行)
『女性』(上同)
『少年』(上同)

東久邇宮妃殿下 清州、大田에 行次

【大田에서本社特派員金容鎭發電】龍山陸軍病院溫陽分院及陸軍臨時轉地療養所에 收容中인 傷病將兵을 御慰問하시기爲하야 二十九日溫陽溫泉에 台臨하신 東久邇宮妃聰子內親王殿下께서는 炎天이고 長期동안의 御遠程에 御疲勞하심에도 不拘하시고 御氣色御麗하시게 二十九日 溫泉에서의 御日程을 終了하신後 湯郡溫陽神井館에서 二日間御旅程의 御疲勞를 靜養하신다음 京城으로부터 御奉送키爲하야 隨行中인 大竹內務局長 二宮憲兵司令官 北野朝鮮軍參謀長과 東京서부터 陪從中인 松本別當 西朝子御用取扱 諏武宮內省屬託 中野拓務省書記官 白土의 奉迎裡에 淸州御着 即 黃井兩侍女其他를 御陪從케하시고 一日午前八時 御用自動車로 溫陽御發 同三十分 天安驛御着 即時 汽車에 御乘換하시고 同九時二十七分 鳥致院御着、金忠北知事의 御案內로 同三十分 御用自動車로 鳥致院御發 同十時十五分 各團體、官民、學生多數의 奉迎裡에 淸州御着 即時 忠淸北道廳에 台臨하시와 金知事以下의 軍獨狀況과 道廳其他高等官、出征軍人遺家族等의 列立拜謁이 잇슨後 金知事로부터 銃後 道內狀況의 言上을 드르섯다

淸州에서의 御日程을 마추신 殿下께서는 淸州에서 御晝食을 마치신後 御發하시게도 同日 午後一時十五分 御用自動車로 淸州御發 同午後二時五分 鳥致院御着 汽車로 軍部將兵、官民、學生、各團體 其他數千名의 堵列 御奉送裡에 同午後二時五十五分 大田御着 鄭忠南知事御先導로 即時 御用自動車로 忠淸南道廳에 台臨하시와 鄭忠南知事 孫全北知事 新貝全南知事以下 軍部道內賓의 軍事保護과 道保護事業 官民有夫人 銃後功勞者 出征軍人遺家族等 列立拜謁이 잇슨다음 鄭忠南、孫全北、新貝全南三知事의各其管內銃後狀況言上이 잇섯다

以上과가티 忠北、忠南兩道의 御日程을 終了하신 殿下께서는 同日午後四時十分 御用自動車로 大田御發、同三十分 儒城御着、鄭忠南知事의 御案內로 鳳鳴館에 드서와 다시 御旅裝을 시치시게되엿다

大野總監歸任遲延

渡東中의 大野政務總監은 折衝中이든 大藏省과의 豫算要求는 一日로써 大體終了하엿스나 東京附近水害關係로 歸任은 一兩日遲延되게되엿다

午後一時부터 [illegible] 當局의 [illegible]에 關하야 意見을交換하엿다

日米小包郵便物 條約改正

日米小包郵便物은 明治卅七年에締結된「米國小包郵便條約」에 依하여오던바 今般右條約을廢止하고 새로「日本國、亞米利加合衆國 小包郵便約定」을 締結하고 七月一日부터 이를實施하기로되엿다 其改正要點은 [illegible] 重量小包와다름업스나 從來의 書籍外[illegible] 取扱하던 制限重量을 [illegible] 以外、重量制限、容積制限、郵便料及價格表記料를改正한 것이다 그리고 比律賓諸島로보내는 小包는 米國小包로부터 除外하고 從來와가튼 條件으로 取扱하기로되엿다

賀屋前藏相 大藏省顧問被仰付

【東京電話同盟】賀屋前藏相은 一日附如左히 大藏省顧問及 國民貯蓄奬勵委員會委員에 任命되엿다

正三位勳二等 賀屋興宣
大藏省顧問被仰付
國民貯蓄奬勵委員會委員被仰付

時事解說 米國의 不干涉政策

米國民主黨下院議員비ー라氏는 過日國會에 [illegible] 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illegible] 市民에게 [illegible] 을 加하는外國政府와 通商關係를 斷絶하라」는 [illegible] 書를 [illegible] 에 寄하야 二十九日 [illegible] 國務長官은 「通商關係斷絶은 [illegible]」

米政府의 傳統的不干涉政策에 [illegible] 된다」고 回答하엿다 이不干涉政策이라고 하는것은 米國의 傳統的外交政策으로 어느政策이 가장重要的으로 [illegible] 되어 [illegible] 米國으로서는 [illegible] 中立法이다。

◇

이中立法은 一九三六年八月二十七日에 制定되고 翌年二月廿九日에는 修正을加하엿다 [illegible] 財政的援助를 禁止하는 同時 公債、크레딧等을 禁止할것等으로 [illegible] 交戰國間에 戰爭이 [illegible] 될때 [illegible] 投入될것을 警戒하야 消極的으로는 戰爭防止를 目標한 法律이니 이法案을 修正實施當時 루大統領의 發表談話를 보면 【今番發表된 修正中立法은 米國의 傳統的中立政策을 [illegible] 한 決定的一步를 [illegible] 으로 交戰國과의 一般的貿易은 平時水準以內로 限定한다」고하엿다。

◇

이로보아 [illegible] 長官의 回答은 米國의 所謂 傳統的不干涉政策의 規範인 中立法에 據하야 交戰國과의 通商關係斷絶은 어느政策에 背馳된다고 明快히 宣明한것으로 米國外交의 今後向路에 對한 示唆가 크다고 볼수잇다。

,蔣을相對치안는 根本方針은不動, 板垣陸相歸任談

【東京電話同盟】西下中의 板垣陸相은 東海道線이 不通된때문에 名古屋으로부터 中央線으로 經由하야 一日午前六時十分新橋驛着列車로 歸京하엿다 陸相은 現下의 日支問題에 對하야 다음가튼 重要談話를 하엿다

第三國斡旋調停說이 잇는모양이나 이것은 國民政府의 斷末魔的呻吟이지 第三國의 發意에 依한것인지 나로서는 알수업스나 蔣政權打倒에 關한 斷乎不退轉의 帝國政府의 決意를 理解치못함에 基因한것일것이다 『蔣介石을相對로아니한다』는 帝國不動의 決意는 一月十六日政府聲明以來 强調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漢口政府와 및 第三國等은 여러가지 立場에서 蔣介石을 支那中央政權의 首班者로한채로 日支間의 和平交涉을 企圖하는모양이나 그따위것은 조금도 議論할 餘地가업다 萬若 一月十六日의 帝國政府의 聲明을 重視한 제스추어로 생각한結果의和平工作이라면 認識不足이라할밧게 업다 蔣政權을打倒한다는我朝野의 決意는 蔣政權이存在하는 限日支間에 和平은업다 十數年間의 오랜동안을두고 本事變勃發의 緣源을釀成하며 또한 事變을 今日과가튼 事態에 끄러너흔 責任者는 蔣自身이다 그 蔣과 握手를하고 和平談判을 進行한다는것은 생각한댓자 되지안는일이아닌가

四相會議

【東京電話同盟】宇垣外相、池田藏商相、板垣陸相、米內海相은 一日閣議散會後 首相官邸에 남어서 [illegible]

朝鮮에도內地에追隨 國民登錄制實施 登錄機關은尙未決定

政府에서는 軍事生産에 必要한 勞務調整의 萬全을 期하기爲하야 國家總動員法中第六條『從業者의 使用雇傭等에關한 規定』及 第二十一條『國民登錄制』를 發動키로 決定하고 이미 어에따르는 勅令을 審議한國家總動員審議委員을 近日中에 發令키로되엿는데 朝鮮에서도 勞働者對策의 緊急性과 同法의 本質에 鑑하야 內地와同時에 勅令으로써 이를施行케될것은 當然한터로 總督府에서는 資源課를 中心으로 그準備에 着手하엿다 이러하야 今回施行할 勅令內容은 特히 朝鮮의 特殊事情을 考慮할것이 적어 同一內容을 施行할模樣인데 國民登錄에關하여는 登錄의 種類內容事項에 얼마間 內地와 그事項을 달리할必要가잇고 또內地의 登錄에 該當한 國營職業紹介所가업는 朝鮮에서 登錄機關을 어더로할가 府、郡、島로써 이에當케하라는 意見이 有力하나 總督府에서는 方今愼重研究中이다

003383

本社懸賞寫眞 三等『夕陽』(場所麻浦) 京城府茶屋町六七ノ一 金龍九

經濟警察官制 全國에約五千名配置

【東京電話同盟】內務省警保局에서는 國家總動員法의 發動에備하야 近近經濟警察官制度確立을期하기로되엿는대 大體經濟警察官의 配置數는 約五千名으로內務省經濟警察部長을 警視官으로써 補充하며 六大都市를 包含한東京、大阪、京都、愛知、神奈川、兵庫의 各府縣警察部에 設置될 經濟警察課長은모두 警視로하고 其他産業經濟上으로 重大한 府縣에는 警部警部補巡査를그府縣의 經濟狀態에따라 配置하려는것인바 其監査範圍는會社의 信用狀態 其他物資動員計畫에必要한 行政取締를 하려는것이다 그리고 그設置에 依하야 會社의 信用狀態違反者摘發、販賣價格取締等는 從來보다도 一層嚴重히勵行하기로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一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 首相官邸에서 開會 病으로靜居中의 近衛首相、有馬農相을除한 各閣僚出席 末次內相 永井遞相 中島鐵相으로부터 水害狀況에關한報告 特히 末次內相으로부터 水害도 말미아마 바든損害及 罹災者救助에 關하야는 應急施策을 講究하야 遺憾업기를 期하고잇다는 旨를 說하고 正午散會하엿다

蘇계·페·우極東長官 류大將避身入滿 一日陸軍省公表

【東京電話同盟】蘇聯內務人民委員部게·페·우極東長官류시코프大將越境逃亡에 關하야 一日陸軍省으로부터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陸軍省一日午正發表
蘇聯邦內에잇서서 苛酷한 肅正工作때문에 身邊의 危險을 感한 極東地方內務人民委員部長官三等國家保安委員(三等大將該當)『류시코프·겐릿세·사모이로뷔치』는 我國의保護를 求할目的으로 지난 六月十三日午前五時三十分頃 琿春東方滿蘇國境을 脫出하야 滿洲國國境警察隊에 收容되엿다

또 目下外蒙古에 肅正中인 蘇軍第三十六自動車化狙擊師團司令部附師團政治部長兼兵少佐『고르르·아르마르·로란즈의케』도 肅正工作의 犧牲이될것을두려워하야 今年五月二十九日外蒙古『차인산티』로부터 스스로自動車를 操縱하면서 烏得을 經由、內蒙古內로脫走하여왓다

류大將의略歷

류시코프·겐릿세·사모이로뷔치大將은 一九〇〇年오뎃사洋服店아들로 태어나 小學校卒業後는 各處의 事務所에 雇傭사리를 하면서 夜學에 通學하엿다 一九一七年共産黨員인 그兄의 感化를 바더 처음으로 革命運動에 投身 共産黨에 入黨케되엿다 其後露西亞오뎃사市에 머물러 차베르政權確立을 爲한鬪爭에 參加하고 一九一八年蘇軍의 우크라이나 進擊에 際하여는 오뎃사市의 "뽀로그크"一員으로서 活躍하다가 一九一九年비로소 第一프리미야聯隊政治部員이 되고 다시同年四月우크라이나 共和黨內務人民委員이 되고 中央政治敎育所에 入學 在學中 이미 國內戰에 參加 同年九月敎育所卒業과同時에 第十四軍第一獨立狙擊旅團政治部員에任命 부러안스크方面의 反데니키軍戰鬪에 [illegible]

主力艦新協定 四萬五千噸에備砲十六吋그대로 英米佛正式調印

【倫敦卅日發同盟】英國代表카드간外務次官、米國代表조산駐英大使館參事官및 佛國代表간분駐英大使館參事官은 三十日午前英國外務省에서 主力艦噸數의最大限을 四萬五千噸으로하는 新協定에 調印을 完了하엿다 右協定에 對하야 쿠퍼ー海相은 卅日午後 英下院에서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英米佛三國政府는 倫敦條約의 에스카레이러ー條項援用에따라 協議한結果 今卅日 現行主力艦噸數制限三萬五千噸을 撤廢하고 새로 四萬五千噸으로制限하는 方式을 確立하는 條約議定書에 調印을 完了하엿다 備砲口徑에 對하야는 現行十六吋의 制限을 依然襲守하기로되엿다

英獨間에도調印 新海軍協定

【倫敦卅日發同盟】英米佛三國政府代表는 三十日正午 英國外務省에서 主力艦噸數新制限에關한 議定書에調印한바 다시 카드간英國外務次官은 英獨海軍協定에 基하야 駐英獨逸大使비크리센氏와의間에도 同一한調印을完了하엿다 新協定에依하야 倫敦條約締約國政府는 四萬五千噸까지의 主力艦을 建造할수잇게되엿는대 英國政府로서는 四萬五千噸以上의 主力艦은 建造치안키로 決定하고 그돈을 米佛獨各大使館에 通告하엿다 이에對하야 佛國政府는 英國을除한他의 歐洲海軍國이 三萬五千噸以上의 主力艦을 建造치안는限 佛國은從來대로 三萬五千噸以上의制限을遵守할旨를回答하엿다 新協定의調印과 잇그러서 日本政府에 對하야 英國政府가 正式으로 通告할것인지 안할른지는 아직決定되지안엇는데英國政府로부터는 아직이에對한 回答이업다 [illegible] 通告할境遇에는 아마도 크레기駐日大使를 通할것으로 생각된다

下津記者의葬儀

【東京電話同盟】去二十二日 海軍情報部 特派員으로 最初의犧牲이되여 ○○戰線의 華로散한 同盟通信社 下津寫眞部次長의葬儀는 七月二日 靑山齋場에서佛式으로 執行하게되엿다

류大將은 그後 同旅團이 第五十七師團第二狙擊旅團으로 改編됨에따라 旅團政治部書記가되엇다가 뒤에 同旅團政治部長이되여 波蘭戰線에 나가엇다 一九二〇年에 當年世界를 戰慄케하든 게·페·우의前身 "체카"에드러가 우크라이나 莫斯科等으로 歷任하엿다 一九三六年아조프黑河地方內務人民委員部長官에 累進한다음 翌三十七年九月極東 地方內務人民委員部長官이되야哈府에着任 今日에이르럿다 同人은革命의 功勞에依하야最高勳章인레닌章을바덧다(寫眞은류시코프大將)

黨、軍會議開催코 支那赤化策決議 中共黨의暗躍熾烈化

【天津三十日發同盟】當地英國側에의 情報에 依하면 抗日戰에 暗躍하는中國共産黨은 지난五月十二日陝西省瀟關에서 黨軍首腦部會議를 召集하고 極東軍司令官 블류헬將軍麾下의 자코크스키 蘇聯漢口派遣軍司令其他蘇聯邦將校가 出席하야 一、國民政府가 崩潰에 瀕하여잇는틈을타서 一擧에 支那赤化를企圖하야 共産黨에 依한 支那統治를 實現하고저 工作을 進行할것 環境에는 赤軍을 中央軍中에 潛入케하야 漸次中央軍內에잇서서의 赤軍의 勢力을 擴大할것 等의 方針을 議決하엿다고하는바 右會議에는 國民政府의軍人은 一人도 出席치안헛다고한다 一、國民政府가 그래도 存續할

長谷川部隊等 潛山西方逆襲敵擊破

【安慶三十日發同盟】舒城、桐城高原作戰에는 敵의背面을 奇襲하야 武勳을세운 長谷川、長野、古賀、飯村各部隊는 지난十七日 潛山占領後 潛山、[illegible] 王河、[illegible] 黃泥舖等 [illegible] 陣地를 [illegible] 하고 [illegible] 하바 二十八日午後 黃泥舖北方에約三百의敵이 [illegible] 하여왓스므로[illegible] 河岸으로부터 攻擊、[illegible] 하야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은二十九日午後 再次潛山西方約二十里되는 地點으로 水上에 [illegible] 하여 오게되여 [illegible] 多數의死傷을 [illegible] 하고 潰走하엿다 [illegible] 第二十七軍 [illegible] 두고 [illegible] 에全力하고 잇다한다

明年度豫算編成方針 五日閣議에附議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編成方針은 一日閣議에 附議할豫定이더바 形便에따라 五日閣議에 附議키로 延期되엿다

阿部、大谷、兒玉氏有力 內閣參議에

【東京電話同盟】內閣參議는 當初十名에 對하야 四名이 缺員되여잇스므로 政府는 近近二名乃至三名을補充하고 第三期段階로드러간 事變處理의應勢를 整備하기로되엿는대 今次補充에當하야는 海軍側과의均衡上 陸軍側으로부터一名 財界로부터一名、其他一名으로重複候補인바 陸軍大將阿部信行과 北支會社、中支會社總裁에 各其內定되여잇는 大谷尊由、兒玉謙次의三氏가 가장有力視된다

蒙古主席에德王 副主席엔李守信氏로決定

【厚和一日發同盟】蒙王의逝去로 因하야 새로 蒙古聯盟自治政府主席及副主席을 決定하는 第三次蒙古大會는 蒙古各旗王侯、日本、滿洲國、察南、晉北等의 各政治代表等參列下에 一日午前十時부터 厚和市公會堂에서 盛大히 擧行된바 滿場一致로써自治政府主席組織大綱第一條에依하야 主席에는 現副主席德王을 推戴하고 副主席에는李守信氏로決定하엿다

長野部隊敗殘兵擊退 塲山西南方서

【徐州三十日發同盟】長野部隊는 二十九日夜塲山西南方二十里되는 小部落에서約五百의敵敗殘兵과遭遇하야 暗夜의平原에서 猛烈한 白兵戰을展開하고 三十日早曉까지에 完全히 이를 潰亂케한바 敵은死體百二十을 遺棄하고 逃走하얏다

京畿道 新設兩課長任命

京畿道에서는 道政의 刷新을 [illegible] 勵하고저 內務部에 社會課、産業部에 農村振興課를 新設하엿는데 社會課長에는 地方課社會主事 日野春吉氏、農村振興課長에는 産業課産業主事 大村[illegible]氏가 各各任命되엿다

八面鋒

◇緊張은 去益甚、革帶를 밧삭졸러매여 皮革도 戰時奮鬪。

◇獨支關係도 또惡化이러지니 楚漢古戰場이니 四面楚歌도 豈不無。

◇支那新政權을 英國은 不承認聲明。

◇國民政府와 偕死할 英國의 自換가 疑問。

◇七千學徒 勞役場으로! 땀의哲學을 배움이。

外人避難列車 九龍驛에到着

【香港三十日發同盟】刻刻增大하는 漢口의 危機를免하고저 避難하는 外人三百餘名을 滿載한 國際列車는 獨英佛三國의 旗를揭揚하고 三十日午後零時五十分 漢口로부터 無事히 九龍驛에到着하엿다 驛頭에는 約二百餘名의 外國人이 避難者를 歡迎하야 歡喜의 바람을 질러 避難者는 恐怖의 支那를 떠나 無事히 英領에들어선기쁨으로 出迎한 友人과互相抱擁하엿다 本國政府로부터 撤歸命令을 바든 獨逸人顧問은 國民政府當局에 留置되야 다음 國際列車를 기다리고 잇는데 今日列車로 到着 又獨大使는라우트만氏의 撤歸荷物이 끼여잇슴은 그家族들이 人目을 그럿다 그리고 避難民中에는 多數의 露西亞人 만써ー가 석겨잇섯는데 그들은모두 船員과 外人、軍人關係者를 相對하는 빠가들인데서 일하고잇섯는데 그들의 談에依하면 아직多數의 露西亞人만써가 남어잇다고한다

重石水鉛螢石高價買入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三九番地
金忠圭鑛業事務所買鑛部
電話本局②三七七四番

部卸具文堂光東
文房具·事務用品
豐富在庫
京城府寬勳洞四〇七番地 東光堂
振替京城16121番
目錄要三錢切手

中古モーター高價買入
遠近不問買賣及交換함
中村鉄工所販賣部
京城觀水町電光一五九四番

海草精
淸血排毒强壯特效藥
適應症
惡性梅毒疾患、淋毒疾患、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風、咽喉疾、頭痛、腦溢血、中風、內腫、疲腫、動脈硬化症
一瓶(一個月分)三圓九拾錢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京三九六番 電光三三番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規則書無料)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朝報案內

至急採用
一、內地人男子數名
年齡十六才以上
身體强健常小學校卒業
度以上
履歷書寫眞 京城府新堂町
植村製藥所

募集
自動車サービス工場見習工十五才
京城永樂町二ノ七
トヨタ自動車販賣株式會社
電本一九六〇·二六五二番

明二日밤부터
七月二、三、四日(三日間)
青春座 特別公演
上演名劇 — 崔獨鵑案
春姬 五幕
東西兩洋을通한戀愛悲劇의最高峰인『椿姬』를가장理想的으로飜案脚色된名劇을 青春座의總動員으로 力演케되엿슴은 愛劇家諸賢의 이저서는안될 絶好의機會라할것입니다! 오소서府民舘으로!
料金 五十錢均一 每夜七時開演
於 府民舘

明二日밤부터
劇團豪華船 凱旋公演
上演名劇 — 李雲芳作
人生의歸路 三幕五場
西北天地의 長期遠征을 마치고 堂堂히 凱旋한 劇團豪華船員의 萬丈氣熖에 부듸치러 오시라
東洋劇場

皮革의 戰時管理와 各方面의 影響打診

상공성(商工省)에서는 면제품(綿製品)에 대한 제조사용과 판매에 관한 금지령을 발포한 뒤를 이어 다시 군수품으로 가장 중요히 쓰이는 피혁(皮革)에 대한 사용과 판매를 일반민수에 제한하는 금지령을 칠월일일부터 실시하는 동시에 그 배급에 대한 통제도 오는 팔월일일부터 실시키로 하엿다 아직 조선에는 실시가 되지안헛스나 조선에도 머지안어 실시될것이요 또 당장 실시는 안되엿다 하더래도 피혁과 그 제품으로 각종 상품이 다수 내지에서 이입되고 잇는만큼 그 영향은 조선에도 극히 크게 잇는터이다 즉 조선에서 소비되는 피혁은 거의 전부가 내지에서 공급을 밧고 잇는만큼 법령의 실시여부를 막론하고 저절로 그 사용과 판매가 못되지 아니치 안케되므로 조선피혁계는 극히 긴장하여 잇다

皮革界는 極閑散

朝鮮內供給은 구두原料뿐

구두도 消費節約必至

總督府商工課 山本事務官 談

이에 대하야 총독부상공과 산본(山本)사무관은 다음과 가티 말한다 피혁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지난번 면제품사용제한과 사정이 다르다 즉 조선의 피혁소비는 전부 내지의 공급에 의해왓스므로 내지에서 판매와 배급통제가 되면 조선서는 저절로 그 영향을 바더서 사용제한을 밧게될것이다 아직 상공성령을 바다보지 못햇스나 이것을 통해 조선사정을 참작해서 필요한대로 법령을 발포하려고 생각하고 잇는중이다

가죽사용제한령의 내지실시에 대하야 조선에 잇는 업자들이 어떠케 보고잇는가를 부내 황금정(黃金町)일정목 도변상회(渡邊商會)에 무러보앗다 장사가 어찌될것인지는 우리도 전연 알수업다 그러나 면포때와 문제가 달러서 가죽에는 아직 대용품이 전연업다는점이 그 사용제한의 영향이 큰 이유이다 조선안에는 운동화제조상은 업고 소비되는것은 다만 구두원료인데 구두값이 엇정나게 버차진관계이지 우리도매상도 대단히 한산하다 그리고 조선안에는 가죽가공하는 공장으로 조선피혁(朝鮮皮革)회사가 잇스나 여기에 기대할수는 업스므로 내지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된다면 조선에서도 구할길이 전연 끈허질것으로 장사형편으로 보면 큰 결단이나 이것도 국책인이상 부득이한 일이다 조선내에서 피혁을 원료로 수요되는것은 거의 구두원료이므로 구두원료에 대해서는 이번 사용금지에 제외는되엿다하나 소가죽을 만드는것은 당연 엇서질것이고 그여의 가죽은 배급은 된다해도 그영향은 역시 적지 안흘것이다 구두가격은 더오를것이어서 구두상점에서도 전도에 대한 모양이라고 보는 편도 만흐나 큰결단이나 이것도 국책인 만큼 참을수밧게 업는 일이다

皮革製用品 代用品으로

和信百貨店側談

상공성에서는 칠월일일부터 피혁의 전시판리안을 단행하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특수사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트렁크』 『핸드빽』 등을 만들지 못하게되엿다 따라서 이것이 순수한 생활필수품은아니나 만큼 일반의 관심은 자못 큰 바 화신(和信)백화점에서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트렁크』나 『핸드빽』등 가죽으로 못만드러도 가죽의 대용품은 이미 발명된것이 상당히 만흐니 염려는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죽의 대용품보다도 가죽제품에 필요한 쇠장식의 부족이 문제될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은 재고품도 상당히 잇스니까 파히 염려될것은 업고 가격도 아직 올릴생각은 업다 아프로 물품이 부족하야 질것은 사실이나 비상시국이니만치 절약하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줄로 압니다

蹴球는 代用品不能

特히 緩和를 要望

運動具商界에 大衝動

금일일에 상공성에서 공포된 피혁사용제한규측(皮革使用制限規則)에 의하면 스포ー츠용구중에서 우혁(牛革)의 사용을 금하기로되엿는데 조선에잇서서 가장대중적『스포ー츠』인 축구(蹴球)와 농구(籠球)는 순전히 우혁으로 만드는것인만치 사게에 큰충동을주고잇다 조선내의 각운동구상에서는 동경, 대판등지의제품을 각자의상호를 부처서판매하여왓스며 일년간소비수는 축구가 약이만개, 농구가 약이천개, 『럭비ー』가 오백여개에 달하는데 지난 유월이십일에 피혁통제안이 공포되자 전기 운동구는 종래의 배가로 폭등하야 각학교와운동단체에서는 막대한타격을밧고잇다 이리하야 피혁전시판리안이 단행됨에따라 대용품이 발견되지 안는다면 스포ー츠게에 적지안흔 영향이미칠것으로 보인다

運動具輸入商 談 피혁통제로인하야 축구와농구등은 전보다 배나 폭등하엿습니다 축구는 대용품으로 만들수업는 것이므로 더욱곤난을 느낄것입니다 얼마전에 귀지에보도 되엿지마는 후생성을 중하야 『스포ー츠용구에대한완화책』이 실시되여 부족한대로 견디지 안는다면 운동경기에는 별로지장이업슬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운동구상에든지 현품이적으니 만치 아프로가 되고 ...

皇后陛下御至仁

京畿道內戰死者遺族들에게 御菓子御歌色紙下賜

황송하옵시게도 황후폐하께옵서는 경기도내의사변전사자유족에대하사 어과자와 어가색지(御歌色紙)를하사하옵시는 분부가게옵셧스므로 일일오전열한시반 도지사실에서 각자(甘蔗)지사로부터 다음유족들에게 전달식을 엄숙히거행하엿다

【京城】=◇故長尾一彦妻長尾照子◇故東口充 父東口進 ◇故永井正雄 父永井新之助 ◇故日名子金吉 母日名子サト

(사진은 전달식광경)

赤色少年事件 懲役一年

釜山法院서言渡

【慶南支社發】경남 적색소년(赤色少年)사건피고 경남 창원군천가면 동선리 (昌原郡天加面東仙...

오늘부터 基礎訓練

燈火管制도同時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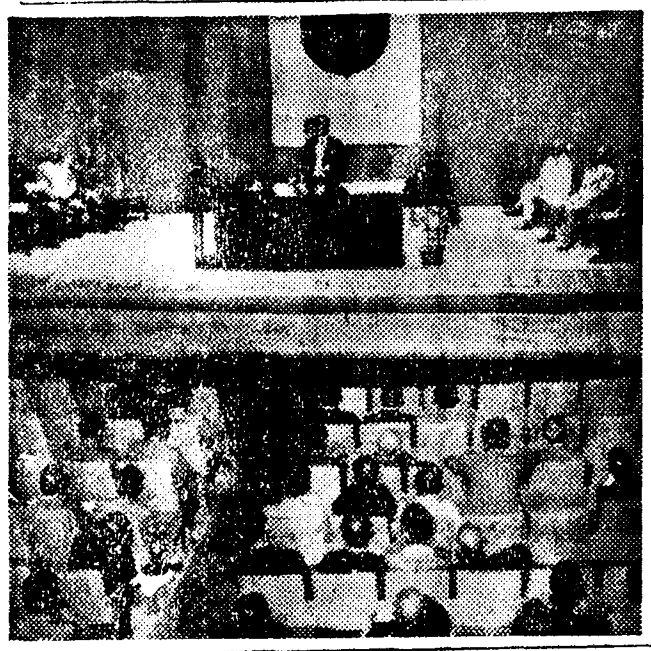
一般은規律을지키라

경기도방공훈련계획의 일일준비가되엿스므로 이날오후한시부터 드디어 기초훈련(基礎訓練)에들어가다 전이틀동안의 준비훈련에잇서서 일반가정등화관제의확구적설비와 자동차등이동등화(移動燈火)의관제설비, 가정방호조합(家庭防護組合)의조직정비 각기관의경보전달등 만비를 지시한바잇섯다 이로써모든준비가 철저하게되엿스므로 오후한시에이르러 경계관제를 실시하야 엿시경에 해제하기로되엿다 등화관제중 일반가정에서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를 훈련치할 고 규율잇는 훈련을하는것이긴요하다 명일까지에 기초훈련을 마치고 넘어서 이틀동안은 다소 복잡한 종합훈련을하기로 되엿스나 경기도방공본부에서는 준비훈련의 성적에비추어 좋은 결과를 나타낼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官民五百餘名參集

今日午前十時府民館「홀」에서

國民總動員京城聯盟創總盛大



장기전에대처하야 거국일치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를 달성할 목적으로 경성부내 유배단체에 십만명의가맹자로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 경성련맹(京城聯盟)창립총회는 오늘일일 사변일주년기념일에 창립총회를 나서 전조선적기관 조선련맹에 압서 일일오전열시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가맹자오백여명이 참렬한가운데 엄숙히열엇다 먼저 뢰뢰(瀨瀨)부사회무장의 개회선언이 잇슨다음 일동의 황거요배 국가합창 전몰장병에 대한묵도에이어 좌백(佐伯)경성부윤으로부터 연맹창립에 대한인사가 잇섯다 시와금조련합회장(矢鍋金組聯合會長)이 좌장에추천되여 정식의에 들어가 하고 이사장으로 부윤을 추대하고 임원으로다음제씨를의촉한다음 열한시반 폐회하엿다 (사진은 국민총동원 경성연맹결성식장)

◆理事長 佐伯顯 ◆副理事長 瀨瀨... ◆理事 前田昇 賀田直治 尹致昊 田中... 阿部良夫 金明濬 韓圭復 李升雨 曹秉相 松島清 ◆相談役 田口弼一 崔麟 金甲淳 ...

不穩雜誌發刊한 兩名을送局

一時는五十餘名檢擧

부내 예지정(禮智町)팔십일번지에서 상공계(商工界)라는 월간잡지를 발간하든 최웅진(崔雄鎭)(三三)이종필(李鍾弼)(二五)두명은 작년팔월 지나사변이발발한지 얼마안되여서부터 그들이발간하는 잡지속에다가 시국에관한 불온한 조건과 기사를 실어 반포한것이 경기도경찰부에 적발되여 경찰부에서는 검거에 착수하야 그간오십여명을 검거취조중이엿섯는데 그간 취조를마치고 일일전기두명만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여왓다 두명은 치안유지법위반죄로 곳 장기(長崎)사상검사의취조를 밧고잇는데 그들의원주소는 다음과가티

◆京畿道振威郡平澤面通伏里 崔雄鎭(三三)

◆同郡同面平澤里 李鍾弼(二五)

元同友會員等 聲明書를發表

오랫동안 미국에서 민족운동을 하고잇든 사람들로 황도일본(皇道日本)정신에 감동하여 분연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국민으로 출발하려고 원동우회(同友會)회원이든 ... 등의신년... 사상전향자의 단체인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에 가입하는 동시에 조선에는 물론 만주지나미국등에잇는 동지와 친고들에게 천매의 성명서를 발송하여 그동안 밝히엇다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가티다

...하려고 알어왓고잇든 新日本의 光榮잇는 理想은 所謂『植民地朝鮮』을 止揚하고 朝鮮을新日本構成의 有力한 分子가되려는 劃期的現象에 鑑하여 從來의所謂民族自決思想은 朝鮮民衆에對하여 無意味하고 東亞更新의新方向을 無視한 反動的 觀念인것이 明白하다 世上에는 赤化共產의 惨禍와 個人功利主義的인 白人文明의醜惡함에 ... 八紘一宇 道義的結合을 理想으로하는 東洋精神 日本主義이 아닐로 眞實로 東亞에 衆生을 救하고 世界人類를 指導하는 唯一한것이다

鑿岩工募集

勞動期日向後十日

총독부에서는 방금 착암공양성소(鑿岩工養成所)를개설코저 양성소원을모집하거니와 그마감도로 아프로 열흘밧게남지 아니하엿다 그런데 여기응모자격에잇서서는 현재광산에고용되어 잇지안트라도 장래 고용될 소망이잇는사람이면 조타고한다

裡里放送局長 記者團을招待

【裡里】이리방송국(裡里放送局)은 개시준비로 분망중이던 방송국장(開所放送局長)은 준비도 거진끝나고 ... 재리신문기자(在裡新聞記者)일동을 초대하야 ... 희 의미하야 ...다고한다

天氣豫報

概況 優勢한低氣壓은 千島方面으로가고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海上과 오호쓰크海와 日本海에擴大되여잇다 滿鮮의 氣壓配置는不安定하고 朝鮮은 흐리엇이고 北東岸에는비가오고 滿洲는흐리고 西日本은遠國에小雨가잇고 其他는흐리나 北海道는天候가조라

豫報 今夜와明日은개엿다흐

昨日最高 三〇度八 / 同 最低 一八度五 / 七月一日最高 一八度八 / 今日正午 一六度八

都市對抗卓球

京城豫選會開催

來八月二十日과 二十一日의兩日間(開催地未定)에擧行될 第七回全日本 都市對抗卓球大會 朝鮮豫選의第一次 豫選의 京城豫選會는 來十日午前十時부터 京城帝大 醫學部 홀에서 左記要項에依하야 行할터이라한다

◆參加資格=昨年五月一日로부터 現在까지 京城府內또는 其附近에居住한者로써朝鮮卓球協會加盟者에 限함

◆參加料=五十錢

◆選拔人員=八名(選拔된 八名以外에 二名을推薦하야 十名으로써 다시 『리ー그』戰을行하야 京城代表選手五名을 決定함)

◆使用球=昭和十一年十月日本卓球協會改正 卓球規則을使用함

◆申込期限=七月六日까지 京城府光化門通遞信局保險業務課內 金敏玉氏에게로 申込할것

東海道線開通

동해도선(東海道線)천기ー학견(川崎ー鶴見)사이의 복구공사는 또바게 빨리진행되여 대판(大阪)방면행은 일일오전열시반 동해발부터 정상적으로 개통되엿다

색연필(色鉛筆)

안하다는것과 뭇한다는것의 정도가 판단다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안될것과 안해도조흔것의 정도도 각기다르다◆이런정도를 서로가리지못하고 만후사탐이 복잡한생활을 하는가운데 무한한 복잡이더해지며 사회ー즉 복잡한사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사탐도 만흘수박게 엄다◆사탐사이의 정담이 또한 사탐의 판단되고 따라서 사탐과 사탐과의 사이는 해도조흘것과 안해도 조흘것이 저절로 분명해질것이며 각개인의 책임과 권한이 스스로 확립되여 사무는 궤도(軌道)우에 올라안즌 열차모양으로 제대로 진행될것이다◆사무적이라든가 사무화한다든가하면 팔정이나 회사의 사무그것만을 말하는것이아니고 개인의 생활태도의문제가 더그러하여야할것이니◆옛날말을빌어 『수신』(修身)의 도라고도할것이요 현대적해석이라고도할것이요 문화인의세련된태도라고도할것이나◆결국 문제는 사탐의본성과 밸심의문제가아닐까

깨여진新婚꿈

窃盜질로結婚費辦出

기꺼운新婚式場에서警察에就縛

나어린 동기(童妓)의 환심을 사기위하야 여관에 전당으로도 라다니면서 손님의 호주머니를 털어다 또바 또바 바처오다가 결혼식을 거행하려던 바로전에 식장에서 붓잡힌 사나이가잇다 그는 본정파주소에 알수업는 박춘희(朴春熙)(二〇)로 일정한직업업시 각처로 도라다니든중 작년부터 서내 인사정(仁寺町)이백사십팔번지의이호에 사는 동기(童妓) 김정자(金貞子)라는 예명을쓰는 게집아이를 한번보고부터 마음이 빠저 전부터 기생의 환심을 사려고 기위하여 절도로나서게되엿다 그이래 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면서 혹은 행상을가장, 혹은 손님으로차리고 투숙해가면서 여러손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현금만 훔처다가 는 게집에게 바친것이라는데 현재 자백한것만도 이천여원에 달한다 그리고 붓잡히던 날은 오래동안의 소원이 성취되여 김정자와의 정식결혼식이 시작되려는직전 식장에 뛰여드러간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여 식장에모엿든 동리사람들을 놀라게하엿다한다

店金携帶走中被捉

부내 길야정(吉野町)일정목십번지 경성택시회사의 조수 우윤성(禹輪星)(一七)이는 지난이십유일오전여덜시부내 황금정일정목에잇는 동회사출장소에서 본사로 보내달라고 의탁마튼현금 일백칠십이원을가지고 그길로동주인 서린정(瑞麟町)사십유번지 장영근(張榮根)(一〇)이와

(金正益)(二一)김광수(金光洙)(二二)김정로 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사건의 공판은 지난일일오후한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고목(高木)판사 주심 주견(酒見)검사입회하에 개정하엿는데 재판장의 사실심리가 끗난후 입회검사로부터 징역각일년식개월의 구형이 잇섯는데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양명에게 징역각일년식을언도하엿다고한다

水上競技의豪華幕

全朝鮮中等大會

三日로戰機切迫(本社後援)

수상경기계(水上競技界)의 화성 경성수영협회 주최와 본사후원으로 조선체육회 전조선중등학교수상경기대회(全朝鮮中等學校水上競技大會)는 오는삼일오후한시부터 경성운동장 풀에서 장쾌한 막을 열게되엿다 보교의명예를 걸머진 경기중학(京畿中學)、배재중학(培材中學)、양정중학(養正中學)、휘문중학(徽文中學)、경신(儆新)、보성(普成)등 수상의 패권을 다투는 각학교의 선수들이 출장할 터인데 이날 시합에 그날을 흥분시킬것이다 그리고 각종목에서 더욱 가치잇는 기록을 만들고자 하야 학생수영의 대회를 일층 흥미잇게 진행시키리라한다

◇大會順序

【午前部】(1)八百米 自由型(2)二百米 自由型 豫選(3)四百米 自由型 豫選(4)二百米 背泳 豫選(5)二百米 平泳 豫選(6)百米 自由型 豫選(7)千五百米 自由型 豫選(8)百米 背泳 豫選(9)二百米 自由型 豫選(10)百米 平泳 豫選

【午後部】(1)二百米 自由型 決勝(2)四百米 自由型 決勝(3)二百米 背泳 決勝(4)百米 平泳 決勝(5)二百米 自由型 決勝(6)百米 平泳 決勝(7)千五百米 自由型 決勝(8)百米 背泳 決勝(9)二百米 平泳 決勝(10)八百米 繼泳 決勝(11)優勝旗授與式及閉會式

◇大會役員

鐵道局昇給

철도국에서는 칠월일일부로 ... 이 승급되엿다

人生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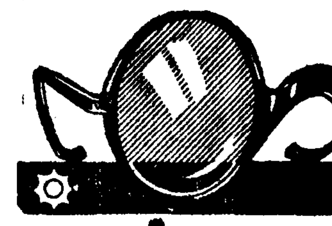
세상에는 불행과 악운과 슬픔이 가득차잇다 그러나 그러타고 세상이 불행만으로 되엿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야 의와 불의가 서로 대립하고 빛과 어두움이 서로 용납지 아니하며 선과 악이 서로 엉키어 잇는것이다 ...

精力強進劑
蔘茸トニク
藥價 五圓 二圓八十錢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
에게蔘茸トニク는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습니다 本劑는聯合臺本劑인故로身體內部로부터精力을增强시키며精力減退, 神經衰弱, 病後衰弱, 肺結核, 貧血症, 早老等으로 悲觀하는人에게顯著한强精効果가有한것은實驗에依하야明白합니다
(全國有名藥局及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합니다)
製造發賣元 京城鐘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賣捌元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代理店 東京 大木合名會社 大阪 高橋盛大堂
無代進呈 見本並說明書

たそがれの維納
作原トスルオフ・リイヴ 曲作ーニモーハルイフ納維
演出別特團樂管
名ナチーエ・コリンヌ・カルザーツ再生機音
사아리 (追悼) 音樂映畫鑑賞會
ドン・キホーテ
最大의音楽映画
蔘茸靈神丸 愛用家無料招待
府民館入場時蔘茸靈神丸五十錢一包사시는분께入場券無料進呈
嬰兒殺シ
山本有三原作
旅に歌ふ
主催 朝鮮日報社事業部
七月五日・六日午後七時
於府民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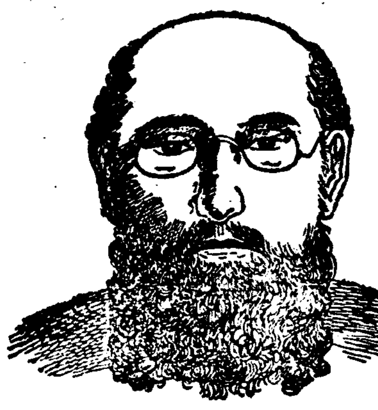
南原魚菜市場開業!!!
七月一日
南原魚菜市場을 右와如히代行經營하오니各地諸位의御指導御利用을바랍니다
全北南原邑市場通
南鮮商業株式會社 電話 六三番 振替京城二九、五六六番
總資本金 參拾萬圓
營業科目 海陸物產委託販賣倉庫業 金融運送業
取締役社長 李正根

眼科 耳鼻咽喉科
(專門)
平壤府巡當里
南山醫院
醫師 金致丸
(入院室完備)


大學堂眼鏡店
各眼科病院處方眼鏡責任調製
京城帝國大學御用
全鮮各道立病院眼科御指定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京城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 二三七五振京 一一二九
眼鏡・寫眼鏡カタログ送呈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연주창
新發見
연주창專門藥 一濟化丸
効力百中、服用容易、無痛完治
藥價 七日分 廿一日分
販賣所 京城藥局

警察官(講習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한방울너흐니
아이 시원도해!

大學目藥

아프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illegible]之氏
醫學博士 桑田正達氏
推奬

適應症
○[illegible]안질 ○[illegible]目 ○淚眼 ○도라홈 ○血目 ○疲勞眼 ○다라기 ○粟粒腫 ○結膜炎 ○수시는눈 ○[illegible]目 ○흐린눈 ○光線眼炎 ○雪目 ○打目 ○상한눈 ○삼눈 ○진안질

定價

人造龜甲케ー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ー스二個)	五十錢
補充用(特大瓶付同)	一圓
케ー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따로잇질경우에는	
十錠	十錢
卄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합

發行所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003384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疾原因은거의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 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나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治療를加하면 病이되지안코말것이라도 治療를加하지안코 버려두는故로 病이되는것이며 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洗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시킨뒤에 까ー제에적시어 눈의안팟을 輕하게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 지금까지 좀처럼 낫지안튼 眼疾도顯著히 快差해갑니다。또、지금은 눈이 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 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 一二滴點眼하면 고만입니다、아츰엔눈곱이끼고해서 第一不潔할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特히 婦人의美眼法으로는 이것이 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 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效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엿는故로 단하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이잇는분이쓰시면 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回復되고바다와山에서쓰면 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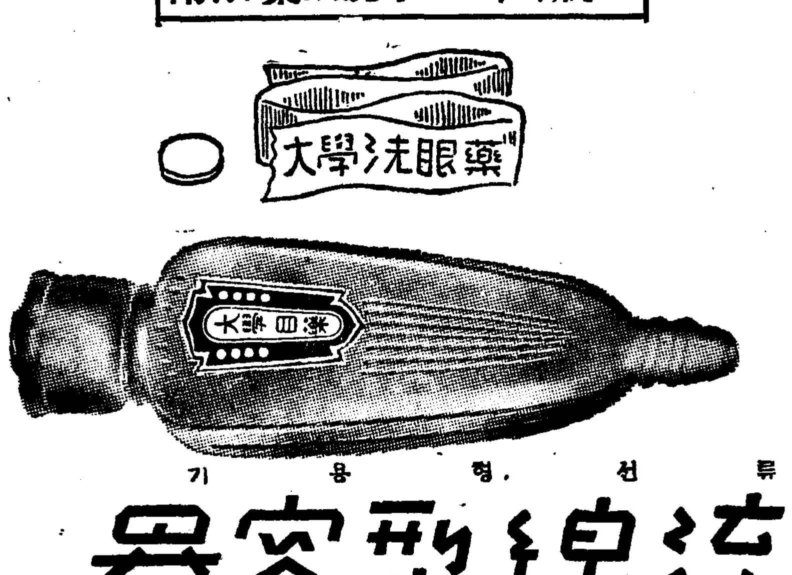
아이에겐 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 썩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 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너이보르미친을 主藥을삼은强力한 消毒力과治療力과 點眼藥의作用을돕는 效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 完全消毒싸니ー테프包裝을하야 大學目藥一瓶마다 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실時는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一瓶마다大學洗眼藥添附



류선형용기
流線型容器

스마ー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819

가치섞거먹어서 조흔것,나뿐것

음식물에관한미신

과학적근거잇는것도잇다

우리조선에도 음식먹는것파미신이 부러잇는것이 여간 만치안습니다。例를들면 애밴여편네가 오리고기를먹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한데 달러붓는 애기를 낫는다는등 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학회라는데서 『현대국민의식량』이란것을조사하다가 일본내지만해도 이음식과 미신이 어떠케만흔지 실로 놀래엿다는것입니다。

이와가튼 미신가운데는 엄따간 파학적 근거가 잇는것도잇고 아조 허무맹낭한 미신뿐인것도 잇서서 대단히 흥미를 끌엇습니다。

이런음식의 대부분은 대개함부로 먹거나 너무먹어서 탈을내는것을 경계하기위해서 만들어낸 모양인데 가령 기름진음식에 물을켜거먹으면 안된다던지 또는 소화가 더디되는것과 곳부패하기 쉬운음식을함께 먹으면 안된다던지 자극성잇는 음식을 섞거 먹으면 안된다는등의 주의를 주기위한 경우가 만습니다。

例를들면

◇게와감을 먹지말라

◇생선회와 참외를 먹지말것

◇술먹은 뒤에 호차를 마시지마라

◇뎀뿌라와어름

이상에든것은 모두그럴듯한 근거라기보다 어쩨든지 거먹으면 설사하기 쉬운것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조 미신으로만 되는것도잇스니 쌍밤을 먹으면 쌍동이를 낫는다든가 상어를 먹으면 어린애살결이 상어껍질처럼 까칠해진다든가 낙지나 문어를 먹으면 뼈업는애기를 낫는다든가—이런것은 순전히 미신에서 생긴것으로 그밧게 가 업습니다。

그밧게 도덕적으로여던교훈을 주기위해서 생긴것도 잇습니다。

식후에 바로누으면 소가된다 밥먹으면서 자고도라다니면 새끼를 두번엇게된다。

이런것은 조치못한 버릇을 고치기위해서 만들어진것인가합니다。그러고 비교적으로 치에맛는것은—

一、여드름잇슬때 鷄을먹지 마라 (사실악화되는 수가 만습니다)

二、사과는변비에조타(사실)

三、밤에잠안올때 마늘이나 파를 썰어서 머리맛헤노코자면 잠이잘온다 (이것도사실입니다)

어쩨든 이러케 음식을 가려먹으라는데는 다소의 과학적근거도잇고 아조허무한 미신도잇스니 상식적으로 삼가야하고 아조미신인 것은 격해야할것입니다。

병은커녕불까지 이르키는쥐생원

한배의열마리식일년열번생산

철저한구제법은업슬까

우리네 집안에 쥐가 몃씨 만흔것은 말할것도 업는데더구나 지방보다도 서울에 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쥐가 무슨 복이나몰어오는줄알고잡기를 끄리는일도잇는데 이것은 조선뿐만아니라 외국에도 잇는말이나 옛날태평시대에나할소리이고지금가튼세상엔 쥐라는놈은 한가히 병을 끌어드리고 집안흥결단내는해로운것으로 밧게 알지안습니다。

영국의 서족박멸협회(鼠族撲滅協會)의 회계에 의지하면 쥐때문에 영국전체가 일년동안에 손해보는것을말하면 실로 일억오천만원이나된다는것입니다。그나그뿐 아니라 모든병을 전염시키고 천장속으로 다니며 전동물을 옴겨서 그림동부터 불어나는수도잇스니 어떠고서야 엇게먹을가게가오는 쥐라고하겟습니까。

쥐는 나서백일만되면 어추와천한 큰쥐가되는데 이것이 일년에 열번 색기를 치고 그색기는 한배에 열마리씩 낫습니다。마루대망 속에서 쥐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됩니까。

이제 쥐를잡는방법을 말씀하면 쥐는 먹을것흔한곳에라야 만흡니다。왜그러냐 하면 이쥐는 아조대식가가되여서 여간만하여 먹는게안입니다。

만일 사흘낫,사흘밤만 이놈을 판굶겨노흐면 그만숙어버리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쥐를업시할수도잇습니다 이러케 배고푼것을 조곰도 못참는놈이고보니 어쩨든 집안에 먹을것을 조곰도 두지말고 깨끗하나 혹은허노치안으면 쥐는 자연업서지는것입니다。

쥐가 조와하는음식은 야채 곡식 감자 고밧게 섬지어 베러 쳐ー스까지 먹는 편야구입니다。제일실혀하는것은 습니다。그러므로 먹을것만 아조업시하고 한일주일만 지내면 쥐는자연업서집니다。땅 부억같은데서 먹을것을 사방에 흣허노코 쥐가뀌다고 걱정하는것은주부의큰수치입니다。

그다음 방법은 쥐동을노아서 잡는것인데 쥐동을노흘때반드시 장갑을끼고 노흘것입니다 그러치안흐면 사람냄새를맛고 오지안습니다。

그리고 한번노아서 쥐를잡은놋은 끌는물에 잘씻서서 쥐냄새를 업서해야 합니다 쥐란놈이 코는 무섭우니까요。

또는 쥐잡는약을 써서도 만히들 잡는데 아비산(亞砒酸)과 린(燐)을 섞근것은 만든지 오래서 단단해지면 줄체로 먹지안코 또는먹어서 죽은놈이 때로는천정속가틀데가서 죽으면 그것이 그속에서 썩웅으로 조치못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고양이를 집에기르면 쥐가 업신을 못하는건 다잘아시지만 고양이가 결말 쥐를 잡아서 먹는것은 그다지 조흔계동의 고양이라고할수업습니다。

그러므로 쥐를 먹지안코 그냥 잘죽처버리는 고양이가 정말 상등계종의 고양이니 기르랫거든 이런고양이를 어더다두십시요。

지차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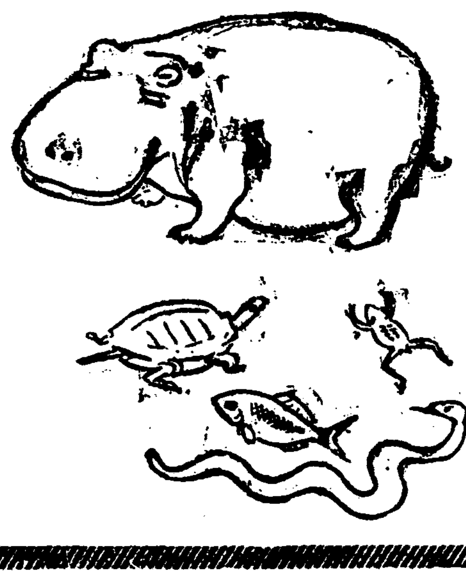
배꼽업는동물

물고기,새,개고리 뱀 이런것은 무두 배꼽이 업습니다。알을까서 나는동물은 그런 법이에요。

◇

하마의 몸무게는 일천관이나되지만 뱃속도 엇재큰지사람하나가일년동안에 쌀올한섬 두말먹는다고 처고 하마는 여섯을 한끼에넓름 먹을수잇습니다。

(광산사랑황일환)



폭양아래에서도 어울리는화장

=강한광선과외계를이용해서 장처를듯보이게합시요

여름엔 엇ㅅ도가 대단히 강렬하기때문에 자칫하면얼굴이나자태가 그속에 파무처서 업는나타나지안케되는 수가 만습니다。눈이부시는 햇빛 무섭한 나무입들의푸른빗,흑 바다에라도가면불어일롯한 힘모래—이러한 외계에 강렬한 색채들의이고 화장,의복,파라솔등을 선뜻하게내세우자면 째여려운일입니다。

햇볏에 끄으는것과 얼굴을 업쇄적으로 보하기위해서 여름일수록 붉은색을만히쓰고 걸고누른빗갈의 화장을 하는사람이 요즘 일본내지엔 째만히잇는데 이와갓치 강렬한 화장은 흰것이나 검은빗의 단조한여름의복 색채에는 잘어울립니다지 안코 또는 얼굴이 더라서 거머가 생기기쉽습니다。엇재든 여름에 넓우깃흔화장을 실천하고자면스런아름다움이 업서집니다。

그러므로 여름엔 대개로 엷은화장을 할것으로 말에 벗겨저도 웬만해 그대로 꼿칠정도의 화장이면 조흡니다。그리고 자기의 살결보다 기프생을펴고 차라리좀 회빗으로 하는편이 더아름답게 보힙니다。왜 그러냐 하면 외부의 색채와 광선의 비치서대단히 효과적인 까닭입니다。

먼저 얼굴바탕부터 젊은 하는데 얼굴의 잔털을 업시하고 눈썹을 서언하게 모양을해둡니다。

그러고 콜드크림으로 흡수에때를 쥐다빼다음 기름끼업시 말슨하게 닥거냅니다 그다음 비니싱크림을 약간 바르고 그우에가루분을 파프로 담뿍 무처가지고 엷게 꼴고로 폅니다。눈썹은 희미하게 보까쓰하는것보다도 여름엔 선이뚜뚜하게 그리는것이 조흐며 엽술연지는 중년부인들은 차라리 바르지안는것이 도로혀 아름답고 젊은이들도엷게바르는것이 조흡니다。머리가 푸수수한것도 여름엔한결더덥게 보히는것이니 할수잇는대로 산뜻하게 깍어 나도록빗고 꽉발르는집에서 바르는편보다도 얼마 좋것이 효과적입니다。

젊은이 가운데 붉은계통의파라솔을 쓰는분이 만흔데 이러면 광선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게보이므로 빨파입술에 연지를발우지는게 바르면 되려 보기숭어습니다 그러므로 루ー스분을쓰더라도 엷은피크색이 압씀니다 그대신 눈에다 약간 『아이쇄도』를하면대단히 인상적으로 보히수잇습니다。

그와반대로 푸른빗의 파라솔을 쓰면 얼굴에 혈색이 조치못한분은 병인파가티 보히므로 어느정도까지 루ー주를써도조흐데 푸른파라솔은대개 얼굴붉은사람이 쓰는것이 조흡니다

講演(一日午後七時) 戰爭과文化 黃義敦

전쟁(戰爭)은 국가와국가간의 힘과힘이균형(均衡)을 일해슬때에 그것을재조정(再調整)하자고 서생기는것입니다 그래서문화(文化)라는것과의 관련을보며는전쟁은흔히문화를파괴하고매개(媒介)하고 수입하고수출하야오것을볼수잇습니다 그래서 한지역에서 만치발하여든문화는 더그범위가 넓게전파되고 더빗나게자랄수도 잇스며 또다른그것과 한데석겨서 더찬연한것을 일울수도잇게 됩니다 즉『기리시아』의문화는『로ー마』의정복전쟁은 (地中海)연안에까지 전파하얏으며십자군(十字軍)의전쟁은『사라센』문화를구자파에까지가저갓섯든것입니다 지금에도 전쟁을통해서이와가튼문화의보급교류(普及交流)하는현상을볼수잇습니다

放送

一日(金曜)

◇午後六時二〇分 月例講話 [illegible] 金 [illegible]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戰爭과文化』 黃義敦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illegible] 天氣豫報
◇午後八時〇〇分 防空問答
◇同八時二〇分 라듸오小說『白雲과人生』 韓一松
◇同八時四五分 五峰山打鈴外
◇同八時四〇分 唱調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調 沈淸歌中皇城올라가는데 金素姬 鼓手 韓成俊
◇同九時 時事解說 朝鮮日報 咸尙勳
◇同九時二〇分 라듸오常識 韓[illegible]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ー스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의番組順序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illegible]講座(二七) 宋今[illegible]

七月二日(土曜)

◇午前六時 (東) 라듸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illegible]講演『[illegible]이야기』 金容[illegible]
◇正 午 (東)時報 (東)[illegible] 콘서ー트 (第二十八回)
◇午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illegible]紹介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ー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明大ー府廳』(雨天順延)
◇同六時三〇分 合唱과獨唱 一、合唱 스와니江 포스터ー作曲 二、獨唱 자장가 슈ー베르트作曲(金庚林) 三、合唱 홈·스위트·홈 비숍作曲 四、獨唱 자장가 브람스作曲(兪[illegible]) 五、合唱 [illegible]나무 슈ー베르트作曲 六、獨唱 [illegible] 드리고作曲(金庚林) 七、合唱 체러키ー의옛집 포스터ー作曲 八、獨唱 [illegible] 베르트作曲([illegible])
合唱 [illegible]合唱團 合唱指揮 金[illegible] 伴奏DK [illegible] 編曲과指揮 [illegible]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六[illegible]이야기』 [illegible] 金[illegible]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illegible]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國民精神總動員에 際하야』 韓相[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一、[illegible]집아가씨(朴) 二、[illegible](南) 三、[illegible](南) 四、비오는[illegible]港(朴) 五、꿈꾸는행주치마(朴)六、他國의旅人愁(朴南) 朴[illegible]林 南一[illegible] 伴奏DK 管絃團
◇同八時五五分 時調 一、平擧時調 二、三數時調 三、弄時調 李炳[illegible]
◇同九時一〇分 野談『[illegible]』 朴一[illegible] 大邱 金[illegible]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ー스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의番組順序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分 國語講座(一四) 李完[illegible]

第二放送

◇午前六時三〇分 [illegible](三天)
◇正 午 (東)十[illegible]콘서ー트
◇午後六時 (大)童話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永田絃次郞
◇同七時四〇分 (城)講演
◇同八時 (大)室內樂 하이든作曲 콘리트·리프레히트 島田猛 西田秀雄
◇同八時三〇分 (東)落語
◇同八時五〇分 (大)義太夫

三日(日曜)

◇午前六時(東) 라듸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illegible]
◇正午(東)時報 [illegible]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ー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ー([illegible])『明大ー[illegible]』『明大ー[illegible]』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三〇分 이소프이야기 尹石重
◇同六時五五分 [illegible]講話 [illegible]相老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 (東)獨唱 [illegible]山瓊 피아노伴奏 井口[illegible]
◇同八時二〇分 [illegible] 一、[illegible] 二、夢中歌 三、[illegible] 李[illegible]香 杖鼓 韓成俊
◇同八時四十分 라듸오드라마『愛憎[illegible]曲』全三幕 石友[illegible]作
配役 朴弘植 任完彬 / 京姬(朴의妻) 池京順 / 金貞旭 荒宅 / 正任(金의妻) 卜[illegible]淑 / 聖이 閔[illegible]植 / 店主 南海林 / 店員(甲) 池明滿 / 店員(乙) 金明
解說 南海[illegible] 演出 金永壽 效果 朴[illegible] 室內舞台
◇同九時一〇分 歌曲 一、平弄 二、羽樂 三、[illegible] 四、[illegible] 金[illegible] 伴奏 金[illegible]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ー스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의番組順序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illegible]講座『孟母이야기(二)』 中村健太郞

第二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家庭園藝時間
◇同九時三〇分 吹奏樂과軍樂
◇正午(東) 狂言
◇午後一〇時(城) 小唄
◇同二時二〇分(東)만담
◇同六時(大)歌物語
◇同六時二五分(廣)講演
◇同七時三〇分(東)日曜演藝
◇同八時二〇分(大)드라마
◇同八時五〇(東)浪花節

防空問答

防空은 어떠케할것인가 (一日后八時)

問 崔仙 劉桂仙 答 李瑞求

방공의 필요는 이제 새삼스러히 말슴할필요도 업는것입니다 다만는 아직도 그방면에 대하야는 잘들이해되지못한 늣김이 만습니다 창구멍으로 새여나는 적디적은 불빗하나가 적의비행기의길을 인도하야주는 길잡이가되는줄알고잇을때에 참으로절저한 방공을위하야서의 우리들의 부단한 주의가 얼마나필요한가를 늣기게합니다 지금방공훈련이 실시되여잇는때를당하야 여러분의 주의를 더욱환기(喚起)케하는의미에서 방공의필요를 하엿습니다『방공은 엇더케하여야 될것인가』에대 여러분의『궁금』을 접부푸러드리려는것입니다。

라듸오小說 白雲과人生 (一日午後八時二五分) 韓一松

모르는 불상한 딸에대한 육친애(肉親愛)이엇습니다 그럽서그가맛치 무엇에게 끌리우듯키황황히다시 고향을 차저올때에는 모ー든것은 변한뒤이엇습니다。인생의무상과 무정에허무이고잇는그에게 뜻하지안흔 그의친구는 몽매에잇지안흔 그의딸을고이고길러서 만나게해주는것이엇습니다 타향지 새삼스럽히또거운우정과 딸에대한사랑에저즈며 그는지금도변케안코 유연하참(?)을 흉의한 회구흉을그립히바라보는것이엇습니다

長篇小說 愚氓 【71】

朴泰遠 作 洪祐伯 畵

崔主簿의집(四)

(오,인제나 오다니 말이되며 또 이자식이 데리고 오긴누굴 데리고 왓단말인고……)

최이회는 매우 못마땅한 얼굴을 하여 가지고,

『아범더러 곳 들러 오라고그래라。』

채 말이 끗나기전에 옥선이가 조심스러운 저룸거리로 방문 아페 와서 섯다。

『어딜 인제 차데것니?』

최이회가 딸을 노려 보앗다 옥선이는 그말에 얼굴이 붉어젓스나,방안에 모혀 안진 집안식구들의 황황한 기색을 보자,할아버니의 목숨이 이제는 참말 경각에 달려 잇슴을 적각하고 그 가슴에 놀람과 슬흠과 또 죄스러운 생각이 불일듯 일어낫다。

『건영이는 뭘 하니?』

어머니가 나즈나마 급한 어조로 말을 하엿슬때

『좀 어떠시가요?』

건영이의 조심성 업는 목소리가 먼저 들리고 다음에 본인이 나타낫다。어데서 또 술이라도 먹은 모양으로 얼굴이 제법 붉다。

『그래 무엄 좀 잡수섯나요?』

천하태평으로 그는 그러한것을 한마디 물엇스나,방안에잇는 이들의 얼굴을 보앗슬때,그는 역시 당황하야,재게 안악을 빼안히 바라보앗다。

최이회는 아들 흘여 보기실혀 잔득 얼굴을 찡그렷스나,그래도 한마디 하엿다。

『어서 들어오너라。어제부터너를 차지셋다。』

그러나 건영이는 그말에 대답을 하려 안코 꼿 뭇치서나가려 하엿다。

『아니,어딜 가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무라듯 말하엿다。

『아,의원을 불러 와야 안허우。그러고들만 안젓스면은 어쩌겟단 말이유?』

건영이가 도라서 그러한 말로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고서 다시 뛰처서 나가려 할때 최주부의 입이 비로소 경련하고 다음에 말소리가 들렷다。

『건영아。』

몹은 그말소리는 방바게까지 들리지 안는다。건영이가 그냥 뒤로를 향하여 잡뒤를 도라가려 하엿슬때 옥선이가 마루까지 뛰여나와 불럿다。

『오빠 할아버지께서오시래요』

황황히 다시 방문아페까지도라오자 최주부는 눈을감은채다시말하엿다。

『가까히……』

건영이는 말업시 조부의 머리 마트로 갓다。

『지금,오는 길이냐?』

여전히 눈을 감은채 하는소리가 극도의 쇠약을 느끼게는 사람이야도 어음만은 죽어가는 사람답지 안케 분명하엿다。

『네ー。』

『누구하고 동행이 잇섯더냐?』

『네ー。』

최주부는 잠깐 입을 다물엇다가,

『누구냐?』

건영은 역시 잠깐 망설거렷스나 그래도 마침내 말하엿다。

『서울서온 학생입니다。』

그말에 최이회 내외와 건영의 아닌은 대답한 당자의 얼굴보다도 옥선이의 표정을 살핀다。처녀의 얼굴은 금시에 샛빨개젓다。

최주부는 역시 눈을 뜨는일업시 다시 말하엿다。

『데리고 왓다지?』

『네ー』

『이리 불러 오너라』

건영은 조부의 뜻을 알길업서 잠깐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말하엿다。

『네ー 허지만 그보다도 의사를 먼저……』

그러나 최주부는 좀더 분명한 어조로 말하엿다。

『의사 부를것 업다。학생이나 곳 데리고 오너라』

건영은 또 잠깐 망설거리다가 이내 나갓다。조금 지나서 그는 학수를 데리고 다시 도라왓다。

최주부는 비로소 눈을 떳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노력하엿다。

『아,웨그러시나요?』

최이회가 그것을 말렷스나,

『아니다。나를 좀 이르켜다우』

최주부는 딴때업시 고집을세워 마침내 아들내외의 힘을빌어 자리우에 위태로히 안젓다。

학수는 자리가 매우 거북하엿다。기어코 집까지 갓치 가자고 건영이가 끄는통에 따라오기는 하엿지만 그의집에 이처럼 우환이 잇슬줄은 과연이지몰랏다。그뿐이 아니라 방안에 잇는이들이 모다 적의를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잇는것만 가태서 불안 하엿다。그는 일부러 자기를 보겟다고 자리우에서 일어나 안기까지 하는 건영의 조부에게 어떠케 인사를 하여야 조흘지 모르면서도 위선 공손히 그의아페 절을 한번 하고 다음에 꿀어 안젓다。

『좀 가까히……』

죽어가는 노인이 명하엿다。학수가 좀더 다가 안자 노인은 한참을 들허지게 젊은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앗다。

『올해 멧치?』

『갓스물입니다』

최주부는 고개를 약간 끄떡어리는듯싶더니,그리자 그의눈에 애닯음이 잠깐 깃드린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동안의 일이요 그는 다시 아들 내외의 손을 벼어 자리우에 몸을 뉘며

『건영이 좀 이리 오너라。모두들 다 나가고……』

장마철은 애기네에게위험신호

위장의위생이제일입니다

인제는아주장마철이되엿습니다。일본내지는 남마다 주룩주룩비가와서무엇이나 축축하게습하고 의복과음식물에곰팡이가 납니다。예전부터장마는『마음속까지썩는다』고하는말이잇는데 우리의정신을썩게한다는말이아니라 위장에 애를 이르키는것이 만케됩니다。특히애기는장마철이되면 위장장애를이르키기쉽고 부모의 조고마한 부주의로 가엽게도 귀여운 애기들을일허버리는 일이여간만치안습니다。

어머니들이 특히주의 하실것은 장마철이되면 애기네의 위장은 자연히해저 잇슬때이니 기후가 조흘때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음식을 마구멕인다던지 꽃질이조치못한 음료수 너무익은과일 특히 바나나 딸기 비파 상하기쉬운 물은파자 날생선 폼잡이 조치못한 아이스크림과아이스케ー키등은 멕이지안는것이 조흐며 더구나 잠자기전에는무엇이나 안먹이는게 조흡니다。

그러나 애기들이 배곱흐라고울정을하면 나쁜줄은 알면서도먹이게되야 급성장가다르를 이르키던지 이질과 여려예 걸려서 애석하도 귀한애기를 일허버리는수가 얼마던지 잇습니다 이러한점에서 부모되시는이는더욱주의하야 불결한일이 업도록 힘써야될것입니다 장마철에는애기들의 위장은약해지는것이므로 이것을 보호해주기위하야 음식의 분량을줄게하고 될수잇는대로과실은과하야 신선한음식을먹이고 잠을충분히 자게하는것이 대단히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의 조고마한 주의여하로당신의 귀한애기를죽이게도되고 구하게도되는것입니다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이달만은 애기들의위장을 가장나빠게하는시절입니다 부듸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머니들께! 애기들의 설사치료법

애기들이설사를하면 어서속히 낫게하려고 설사를갑자기맥히는 약을멕이게되는데 이것은대단히 잘못된방법입니다 설사를갑자기 맥히게하는것은 대단히위험한일 입니다 어째서그러냐하면설사를 하는것은 반드시 장에설사를하게하는원인이되는 나뿐것이드러잇기때문인고로 이 나뿐것을 채외로배설시키기위하야 피마자기름가튼것을먹이고 설사를시켜버리지안으면 안됨니다 그런다음에설사맥히는약을 멕여야됨니다 그러치안코 설사한다고 바로설사를맥히는약을썻스면 배속에나뿐것이 그대로남아잇서서 배속에서 썩게되므로 해로운독소를 발생하고 이독소때문에 여러가지병을 이르키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기들이설사를 할때에는 치료를 원인적으로서 서서히 치료하는약은 무엇이 제일조흔냐하면 요지음 발매되고잇는 베ー비ー散이 가장 애기들의 위장에 적합하지안은가생각합니다

베ー비ー散은 가루꼰, 아루시린와이스 지아스타ー제, 마구네시아 고리겡이라는 다섯가지약을 신중히 배합한 애기네전문의 건위, 정장 지사제입니다。

이배합된 약들은 어떠한작용을하는가하면

가루꼰……단닌산제라친이라는약과 베쓰오나푸도ー르이라는두가지약이화학적으로 결합해잇는약으로서 단닌산제라친은 설사를서서히굿치고 장점막의진무름을 막는작용이잇고 베쓰오나푸도ー르은 장속의나뿐것을 소독하는작용이잇습니다

아루사린와이스……장속의나뿐것(독소)를 빨라드리는작용과병원균을죽이고 설사를천천히막는 작용이잇습니다

지아스타ー제……위의소화력을도읍고 소화불량을 고치는작용이잇습니다

마구네시야……지아스타ー제의 소화력을 돕는작용이잇습니다

고리겡……신체의영양의 근원이되는 아미노산과 비타민B를 함유하고 설사와소화불량으로 쇠약한신체에영양을 보급하는약입니다

베ー비ー散은 이상다섯가지약이 아닙니다 베ー비ー散은 직접조선으로되여서 설사를 서서히 맥히게하는 애기들의 건위정장지사약으로서 가장우수한 약이올시다 어느약방에서나 팔고잇습니다 약이어린것들때는 꼭가정에 접수문해주십시요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電話本局 [illegible]

明治座 マネキ竹松
7月1日5日上映時間表
ニュース漫畵 11.40—12.16 3.16—3.50 7.10—7.46
スパンキー將軍 12.20—1.29 3.56—5.05 7.50—8.59
國民の誓 1.33—3.11 5.10—6.48 9.04—10.42
次週豫告 國民の誓 からくり花形

日活 黃金座
六月三十日ヨリ 七月四日マデ
日活ニュース 2.42 6.45
國演の母 11.00 2.52 6.55
軍社ニュース 11.47 3.39 7.42
命を賭けぬ男 11.57 3.49 7.52
パニュースマンガ 1.14 5.06 9.09
新撰組 1.24 5.16 9.19
午前中入場者 30錢均一

團成社 電話光化門 三四九二番
劇團中央舞臺公演 六月二十九日부터(三日夜間만)
▲李[illegible]作『아버지와 딸』 四幕五場
아버지는딸을위하야 [illegible]
▲金承久作『黃金狂想曲』一幕
次週! 朝鮮歌舞大會 朝鮮古典歌舞界의一流名星을총[illegible]

優美館 電話光 三九五
愛慾에凍結된復讐性格戰慄篇 七月一日부터納涼特別大公開 大衆席 料金 二十錢 十錢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찰스·비ー다ー氏 監督作品 死の警告 마리안·마ー슈! 에이가ー무르ー! 主演
東寶映畵超大作全發聲 矢倉茂雄氏 監督作品! トレミ八大學生 藤原釜足 伊藤薰子 岸井明 江戶川蘭子 主演
全勝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山田耕筰 監督作品! 雙生兒の復讐 松本榮三郞 主演
開幕 東日大每ニュース 笑王! 天下名物男 日本차ップ린實演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六月三十日부터七月二日까지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晝間一時 夜間七時卅分始映
大每ニュース 讀賣ニュース
大日本天然色映畵社超特作品ー 總天然色時代活劇 月形半平太 監督 志波西果氏 主演 月形龍之助 酒井光子
海洋活劇 海ノ巨人 RKO社作全發聲日本版 主演 [illegible]
次週 [illegible] 日本一の岡引

世紀에 붓치는 말

事實의 世紀와 知識人

崔載瑞

바이런—는 二十世紀를 事實의 世紀라고 말하얏다 事實의 世紀는 秩序의 世紀에 對하는 말이다 現世紀가 十六世紀나 十九世紀와가 啓蒙的役割을 가진 世紀이나 或은 中世紀와가 宗敎的時性을 가진 世紀이나 할것갓흐면 알수업스나 何如튼 二十世紀內에 人類史上에 大變動이 잇스리라 하는 豫測에는 틀림이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事實이 秩序를 깨트리고 前進하며 行動이 知性을 바차고 나서는데 現世紀의 강會수업는 風貌가 나타난다 勿論 스캐리스트에 依하면 思惟의 合理化가 아니 思想이 업고 行動의 辯護가 아니 哲學이 업지만 現世紀에 잇서선 思索이 미처 事實을 合理化할틈이 업고 또 行動이 구태여 思想의 辯護를 期待치 안는데 그 熾烈한 時代性이 보힌다. 假令 一例를 들면 一國의 外務大臣이 그外交演說에서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안흔 나라』의 差異를 正直하게 指摘하고도 그欲求를 率直하게 陳述한다. 이것은 過去의 秩序的世紀에선 보지못하던바이다 過去의 美辭麗句의 羅列에 지내지못하던 外交演說에 比하면 이와가튼 事實의 提示는 그裸體性의 徹底함에 잇서서 도리어 魅力이 잇기도하다.

何如튼 事實이 自動的으로 秩序를 破壞하고 行動이 故意로 知性을 蔑視하는 世紀에 잇서서 知識人은 어떤態度를 取하며 어떤役割을 스스로가저야할까? 적어도 知識人이 現在에 잇서서 무슨 嚮導的役割을 가진다거나 或은 指導性을 確立한다고 생각함은 迷信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今日의 事實世紀는 人智가 過去五世紀동안에 物質的으로나 거의 完璧에 가까우리만큼 構成하야노흔 秩序의 殿堂을 깨트리랴는데서 胎作되엿다. 知性으로 解決할수업는 矛盾과 病弊를 知性의 若干과 僞善에 맛겨둔채 世界各國民이 저저마다 獨自의 힘으로써 自己自身의 運命을 開拓하려고 굿게 決意한적이 現世紀이다 이러한것을 생각할때 적어도 現代知識人은 價値를 創造할만한 歷史的포인트 우에 스고잇지 안는것만은 事實이다 創造란 반드시 個性과 時代가 幸福스럽게 一致되는 포인트에서만 생겨난다 그러면 知識人은 知性을 抛棄하는 外에 길이 업는가?

今日의 事實을 知識人은 認定치 안흘수업다 事實이란 그에게 服從하거나 그러치 안흐면 그에게 侵害된다 事實은 現實의 生活을 意味하기때문이다 이러한 嚴肅한 事實을 아페두고 知識人이 아직도 否認的態度를 取한다는것은 自己欺瞞밧게는 되지 안는다 그러나 그와 同時에 今日의 事實과 行動이 人類를 어데로 引導하고 잇느냐하는 深刻한 問題에 對하야 그의 知性이 休息한다면 그는 주리앙·반다가 말한 『知識者의 背任』의 罪를 犯하는 者이다 歷史的事實이 歷史的成果를 매즈라면 반듯이 新秩序와 調和를 매저야하겟고 또 반듯이 그런時期가 도라오리라고 생각된다. 그때에 一旦 破壞된 秩序를 修理하고 새로운 事實과의 連絡을 짓고 또 그것을 正當한 方向으로 指導할 사람은 知識人을 두고 업다. 虛空에 던진 돌은 반듯이 따우에 떠러진다. 歷史的秩序로부터 뛰여나온 事實은 반듯이 歷史的事實로 도라간다.

그러나 事實의 誕生으로 말미아마 秩序가 破壞되는 瞬間과 그事實이 歷史的으로 秩序化하는 瞬間새에 아무런 連絡도 업다면 그것은 永永 斷絶된 暗黑이고 그間에 支拂된 犧牲은 永永 犧牲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그 連絡이란 暫時도 休息할수업는 知識人의 知的生活이다. 知識人의 知的事業이 一時停頓되는 것은 不可避하다. 혼히 이러한 現象을 보고 文化의 斷絶이라고 한다. 그러나 文化의 傳承은 물이나 불을 옴기는거와는 다르다. 그것은 차라리 물결에 比할것이다. 波動은 물 自體의 移送이 아니라 다만 振動이—더 嚴密히 말하면 運動에 넘기가—물을 媒介삼아 傳承되는 것이다. 表面上 文化的 經營이 一時停頓된다 할지라도 知識人의 知的에 넘기만 살아잇다면 文化傳承은 반듯이 可能하다.

知識人의 卑屈도 그러려니와 知識人의 自己卑下는 더욱 相當히 警戒할 現象이다. 知識人의 自重이 現代에 잇서서와가티 重要한 時期도 업다. 그는 混亂한 事實로부터 無理하게 너무도 조급하게 結論을 어드려하지 말고 그러타고 知性의 權威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 업시 來日을 생각하는 同時에 더욱더욱 歷史를 回顧하야, 瞬時라도 知性의 修練을 게을리지 안는데 現代知識人이 取할 態度가 暗示된다. 나는 이런 意味에서 東羅馬帝國의 歷史와 아울러 르네상스—時代歷史에 非常한 興味를 끈다.

漢詩募集
題　梧桐
押　陽
限　七月十五日

塔士童來의 藝術聖戰

第二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九月中旬　申請期日……九月五日
曲　目……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　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
【피 아 노】 Impromptu (卽興曲) No. 4 (作曲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1樂章=로—데
【譜　表】 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褒　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쿨賞을授與함
審査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003385

主催 朝鮮日報社

近郊의 名勝 (四)

湖岩

洞壑이 窈窕하고 巖石이 奇絶하야 城內名勝의 第一로 꼽는 三淸洞은 東國名山水記에 依하면 옛날은 淸味堂舊의 瀑布도 좋고 [illegible]도 좋아 욱어젓다. 그러든것이 언제인가 瀑布는 없어지고 松林만이 남엇고 [illegible] 大小寺刹의 廢墟와 三淸殿의 遺址는 온데간데도 오히려 佛國仙境을 말하고잇다. 紅塵咫尺에 이런 佛國의 別界가 노여잇슴은 확실히 大京城의 一誇로 이 될만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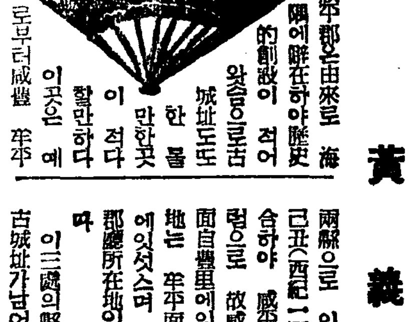
이 仙區에 對하야 古今人의 吟咏이 적지아니하나 實景과 古讚을 아울러 잘 描寫하기는 光海主의 三淸洞詩이다.
丹壑陰陰翠靄間。[illegible]
[illegible]。煙霞玉[illegible]。
曙月松風[illegible]。
이것을 보면 黨爭등에 [illegible]牲이 된 光海主는 文藝의 素[illegible]

[illegible] 오늘날 天然瀑布에 걷이며 [illegible]를 마시는 衆多의 逍遙客중에 흐른 光陰의 이 詩句를 읊은이가 잇는가.
白雲洞은 녜로부터 靑鶴洞과 竝稱하는 城內名所로 비록 三淸洞보다 狹少하나 林壑[illegible] 然의 [illegible]하기는 三淸洞에 [illegible] 川石幷美의 五言絶句이다.
步入白雲洞。[illegible]
山深人不見。[illegible]
이詩를 읊을때 白雲洞속에 逍遙하는 當時詩人의 閑寂味를 彷彿히 想見할수잇다.
[illegible] 漢陽朝初에 白雲洞으로써 松京의 紫霞洞에 比하엿다. 最近에와서 東[illegible] 別墅가 잇섯는데 그것이 오늘날은 白雲莊이란 [illegible]한 一料亭이 되고 말엇다.
白雲洞을 그린 名詩로서 自[illegible]

紫霞門밖 洗劍亭附近은 [illegible] 郊十勝의 첫머리에 적힌 近郊水石의 名勝이다. 녜로엔 櫻桃와 가플연林檎과 갈가든 名産物이 잇슬뿐만아니라, 衆多의 古蹟과 傳說이 얽켜잇서 來人去客의 感懷를 자어내게한다. 莊義寺내런에 잠겨잇는 長義洞溪谷과 그[illegible]의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가까이 李朝에 드러와 安平大君의 北山精舍와 燕山君의 蕩春臺 자취며 大院王의 石坡山莊은 오늘날까지 依然히 存在한것이 아닌가.

다만 洗劍亭하나로만 [illegible]야도 그미려 [illegible]과 함께 여러가지 古蹟과 傳說이 적여잇스며 同亭門楣의 洗劍亭이란 三大字는 英祖의 御筆이엿는바 數十年前에 업서지고 말엇스나 丁茶山의 洗劍亭詩末句에 『樹頭有御筆。表顯[illegible]名區』라한건 이 英祖의 御筆을 指稱함이다.

나는 일즉 京城八景을 여러케 생각해본일이 엿스니 一時笑話에 지내지못하나 慶苑花鳥、漢江煙月、南山翠嵐、北岳晴雪、駱峰朝日、[illegible]暮雨、[illegible]、[illegible]이엿섯다.



(咸)(平)(行)……(三) 牟額의 古城址

黃義敦

咸平郡은 由來로 海隅에 僻在하야 歷史的 創設이 적어왓슴으로 古城址도 또한 볼만한곳이 적다 이곳은 예로부터 咸豊 牟平兩縣으로 잇던것이 太宗九年己丑(西紀一四〇九年)에 그를 合하야 咸平縣이 되얏섯다 그럼으로 故咸豊縣治地는 咸平面自豊里에 잇섯고 故牟平縣治地는 牟平面上谷里(元牟平里)에 잇섯스며 咸平縣治地는 現郡廳所在地인 咸平面咸平里이다 이三處의 縣治所在地엔 應當 古城址가 남어잇스리라 생각할것이나 實際에 調査하야보면 牟平縣治所在地엔 그附近에 城山이라하는 牧馬場에 牧馬의 脫走를 防止하기 爲하야 싸어떤 小城이 잇슬뿐외에는 아무것도 發見할수업게되얏다

그러고 咸豊縣의 遺址에는 周約一粁의 조그마한 土城址가 희미하게 남어잇슬뿐이다. 그다음 咸平郡治의 所在地로 잇던『箕山城』은 邑城보다도 山城이라할만하다 『東國輿地勝覽』箕山城條에 『石築周千八百五十七尺。高九尺。內有六泉一池。有軍倉』이라하얏다 그러고 郡誌에도 同一의 記錄이 잇스며 끗트로 『舊廢』의 二字가 달녀잇다 이로부터 밀우어보면 그築城年代는 輿地勝覽의 著作以前 合郡하던 太宗九年以後가 될것이오 廢棄의 年代는 咸平郡誌의 著作하던 光武十年丙午以前으로 볼수잇다 그러고 即今 남어잇는 頹廢의 城址를 보면 箕閣里小學校 뒤로부터 起點하야 箕山의 半部를 中心에 두고 楕圓形으로 둘너잇는바 高約三米 厚約七、五米 周約一粁의 小城이다.

그러고 이박그로도 月岳, 金城 二基의 山城이 잇스니 月岳山城은 月也面月岳里 月岳山에 잇는 城址로서 高約五米 厚約一〇米 周約一粁의 小城이다. 그럼으로 輿地勝覽엔 記載가 되지안코 郡誌엔 『月岳山城遺址尙存』이라 써잇슬뿐이다.

이城이 아무리 小城일지라도 咸平 長城兩郡의 境界線에서 잇고 全羅南北道를 縱貫한 大路가 城前에 通過하얏슴을 보면 舊日엔 相當한 要塞地帶로서 아마 百濟人의 國防上 必要한 要塞으로 잇섯던것인듯하다.

金城山城은 大洞面龍城里 金城山上에 잇는 城이다. 高約三米 厚約一三、米 周約六粁로서 天作의 城址인 馬蹄形의 金城山을 차고돌아잇다 이가 곳 咸平郡內엔 第一의 巨城이다. 輿地勝覽엔 『金城山城 在縣北十五里石築 周一千三百尺 高五尺 內有小泉今半頹廢』이라하얏다. 『一千三百尺高五尺』이라한것은 이城을 보지못한사람의 想像인듯하다. 現在의 殘址로 보아서 確實히 千三百尺은 더되는듯하다. 六粁가 넘을듯하며 高도 約三米로서 아무리 周尺이 크더래도 五尺은 더될것갓치이다. 그러고 그位置가 在縣北으로 咸平西海에 臨하고 左便으로 咸平地이다. 그 築城年代는 詳知키 어려우나 輿地勝覽에도 『今半頹廢』라함을 보면 百濟時代에 要塞地帶인듯하다.

…文…人…趣…味…展……(二)

"카""메""라""癖"

李石薰

趣味란 一種癖疾이어서 거기 못들리게되면 一生을 通해 不治症이 되고마는것이다. 가령 나로 말하면 文學도 趣味로 가까이 하기시작한것이 인제는 偏癖에까지 들고들어서 떼라야 뗄수업는 疾患이 되고만듯 십다. 말하자면 中毒이 된것인데 이왕 文學中毒이 되엇슬바엔 中毒者로서의 快樂을 그속에서 發見하고 味到하는 境地에까지 이르러야 할터인데 아직은 이中毒症도 三期에 이르지는 안엇슴인지 때로 文學을 嫌惡하라는 自己反省的發作이 勃然히 이러나군 하는것이다. 中毒者가 自己의 疾病을 反省할만한 餘裕를 가지는것은 곳 三期以前의 現像이어서 三期에까지 이르면 그러한 反省이 잇슬수업는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文學을 趣味로 한다던가 或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잇는동안 到底히 文學의 核心을 붓들지못한 所以요 말하자면 수박것할끼와 마찬가지로서 참으로 文學을 한다 또는 文學人이라·할수는 업슬것이다. 文學을 하는이 上 그境地에 이르지 안코서는 조흔作品을 나흘수 업슬것이오 도리어 文學은 글자그대로 집스러운 滑稽의 것밖게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리오? 나는 아직 文學을 趣味로서 하는 境地를 버서나지 못하고잇습니다。

○

지난번 『朝光』誌에서 『무슨 餘技를 하느냐』는 물음에 金珖燮、毛允淑 두분이 『本技가 업는데 餘技가 잇슬理 잇느냐』한 對答을 보고 나치도못해진을 께다른바 잇섯거니와 事實 나로 말해도 이設問에 對하야 『小說쓰기오』하고 對答하라 햇던것이다. 小說쓰기를 餘技로 한다하면 이런 對答에 對해서 매우 不謙遜하다하야 非難할것들이 만흘것이다 그러한 非難이 잇슬수잇는 사람일런이나 나로 말하면 『더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나는 作家다』할수잇스리만큼 作家로서 自信을 가저본적이 업기때문에 不謙遜하다치더라도 小說의 餘技로 한다하는 수밧게 다른 正直한 對答이 업슬것이다 그러나 『朝光』誌의 編輯者는 決코 그런意味로 設問한것은 아닐것이다 世俗的인 一般的意味로 取扱한것으로 解釋한다 文學하는것을 本技로 假定햇는지도 모르고 아나운서—나 敎員이나 雜誌記者를 本技로 假定할수도 잇는것이다 그러한 假定우에 또다른 무슨 技能이 잇느냐?한것이 『朝光』誌의 設問의 本意인듯 싶헛스므로 나는 日 카메라道樂이니 레니스니하고 對答하엿다.

○

『카메라』를 말하면 趣味中에는 高尙한 趣味라 나는 생각한다 나는 본래 室內遊戲를 실혀한다。 무더운 여름한낫에 좁은 房속에 이마를 대고 둘러안저서、홀라니 퍼이니하는 麻雀이나 서로 징갱이질하며 한자리씩 메어가는 바둑類에 원일인지 나는 趣味를 부칠수업다。 내성벽으로는 가까히하고 십지도 안커니와 내가 조아하는 사람이 그런걸하고 안젓는걸 보면 글바 情이 도라서리만큼 그런 노름을 실혀한다 그런 노름은 박가出入도 맘대로 안되는 늙은이들이 배는 부른데 할일업시 심심푸리로나 할것이라 나는 생각한다。하물며 파라케 젊은이들이 太陽이 입새입새에 뛰노는 욱어진 綠蔭과 푸른물과 노픈山을 등지고 집속에 드러바켜서 할노릇이라! 자칫하면 修身先生이나 道學者의 講話처럼 될 念慮가 잇거니와 事實 나는 박게서 하는 스포—츠、所謂 『아웃도어 스포—츠』에 趣味를 가지고잇기때문에 또 그것이 健全한 趣味임을 밋기때문에 이런소리를 하는것이다。

우에 카메라趣味를 高尙하다 햇거니와 이지 겨우 昨年六月부터 가지고 그러지만 趣味中엔 으뜸가는 興味진진한 道樂인듯싶다。 가지잇는 동무들이 꼿 잘 뵈줬을 바고 자꾸 勸하는데이 끌려갈도 잇섯거니와 무어보다도 조흔 風景의 아름다움을 『로케』의 畵面을 통하마다 나도 카메라를 사서 저런 自然의 風景을 박어두고 즐기리라하는 생각과 또 昨年六月號이엇섯던가? 『아사히카메라』에 揭載된 A氏의 金剛山風景과 慶會樓연바 드나무미테 女子가 기대섯는 寫眞等을 보고 그만 견디기 어려운 高興에의 誘惑을 느꼈던것이 動機로 『카메라』를 求하게된것이다。 조흔 그림을 보고 『나도 美術家가 되리라』한다던가 或은 조흔 小說을 읽고 『나도 小說家가 되엿스면』하는 그러기 어려운 慾望、憧憬、衝動이나 一般이다。 『나도 조흔 카메라맨이 되리라』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趣味로 해보리라고 시작한것이 於焉 一年이 되는대 道樂을 道樂하니까 技能의 向上이 잇슬理 업서 아직 餘技程度에도 達하지못햇다。 『카메라』는 그 『메카니즘』이 寫眞이 되게가리이기때문에 어떠한 初步입지라도 배워가지고 곳 初어서 스무장中에 두서장은 所謂 初期의 傑作이 나오는法이다。 그래 『내才幹도 相當한걸』하고, 곳 自賞하기 쉬운일이지만 其實 그相當한 才幹은 카메라의 本來의 性能일따름인것이다。 得意로 처에는 조흔대고 필름을 消費하는것이 常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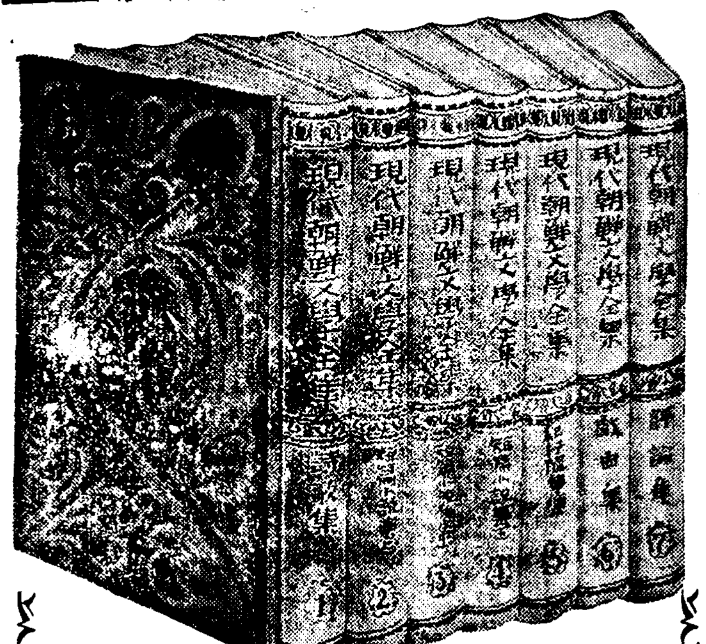
制限된 枚數가 다하야 더 갈게 될수업거니와 平凡한것은 趣味는 深化한질 못하고 넓이 擴大된 嫌이 업지안흐니 이바겟 花華가 주는 趣味가 또한 방불하야 돌안에 『다리아』니 『칸나』니 千日紅이니하는것 심으고 숩치러 자라이 더치꼬 조흔 업이라도 빼냅만치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며 어루만진다。 그래도 어느새 조금씩조금씩 커지는 키를 바라보는 즐거움! 그러나 지난봄 平壤驛에서 파는것을 밤에 집에 오는길에 사온 귀여운 紅이 역시 넘우 어루만진 탓인지 이즘와서 입파리가 누러케 시들어 若干 失望하고잇다 (끗)

女流短篇 "狂人手記" (七)

白信愛 作
崔根培 畵

참아 이르키기가 안되엿서 그대로 나가 아이들 방을 거두어멕이후 모다 학교로 보냇고 나는 다시 그이를 깨웟지요。
"아이 끈해、귀치안케 왜이모양이야!"
하고 성을 벌컥내는구려.
그래도 나는 념려가되여
"발늣게 재발좀 다니시지말고서요、몸에 해롭지안어요"
하며 그에게 주의를 바랏답니다 나고애썻하려고 시작햇읍니다.
"발늣게? 누가발이야? 간밤에도 내가 일즉 들어왓는대 그래 남보구 아이들보구 가르키라고하면서 저는 초저녁부터 잡이나 자는거야? 뚜식한 게집이란 아무소용도업서 자식교육을 할줄아나……밤이나 처먹고 서방에만 밝어서…… 에이야만이야 천생 글수나 다 틀어지원가"
어허이고 하느님 그이가 하는구말이 이럿습니다.
그이가 새로두시에 들어온것을 뻔이 아는 내가 아닌가요。
그래 나는 하도 어이가업서 그대로 또 참엇지요。
또 그날밤이 되니까 그이는 어재저녁과 꼭가티 아이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대 다—뿌리치고 나가바립니다 나는 그이의 그러한 태도가 원망스러운것은 둘째가되고 그이가 이러다가 잡혀갈가바 겁이 나서 그날밤도 또 딸어나섯지요.
"내가 그집대문안에서, 기달리고 잇스면서 행여나 순사가 번쩍거리면 얼는 그이에게 알려주어야지"
하는 염려로 딸어갓지요。
과연 이날밤도 어제그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길게 한숨짓고 그집대문아페서 파수를 보고 섯지요 그래 이옥히 서다가 어둠속에서라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문이라는것은 걸닙니것이고 담이 죄다 문허지고 말엇슴으로 그집안이 휘히 드러다 보이겟지요.
그래 나는 일변 깃부고 일변 겁이나면서도 나도 모르게 들로 살그머니 드러갓지요 대체 그이의 동지(同志)가 멧사람식이나 모히는가—하여서 뭇마루아래를 살혀보앗드니 하얀 며인네의 고무신 한커레와 그이의 구두가 가즈런이 버서저잇지안습니까 나는 새삼스러히 가삼이 덜컥하여 살을 집모퉁이로 들어갓드니 춥드란 뒤뜰이 잇고 뒤창으로 불이 비처잇는데 아마도 그창안에는 그이가 잇슬것이 분명하므로 아주 저색기처럼 기어가서 그창여며 날짝부터섯습니다.
방안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내 가삼은 생칭목소리기는것가티 요란합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 아들이 중학교에 수험한다지요?"
하는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새여나옵니다 나는 그 요란하든 심장이 갑작이 껌바 까물어지는것가튼구려 하하하…하하하、아이그 우습다 우수워。
배가곱흐다—아이치워 비는 경치게온다。에—라 고기나 줌잡어먹을가……
어데보자 옷치 이러케 옷을 동동거더올니고나서 고기나 잡어먹자……
아이그 한마리도 잡히지안내 어어큐 요놈의고기……아장하는나 내이놈 내이놈 아이구구하구하하……
고기는 잡히지안내! 에—라 이놈의 네물을 죄다 삽키자、그러면 고기도 죄다 따러들어올거지—
풀떡풀떡……(네물에 입을대어고 마심니다)
어이구 배불러라、내배속에도 네물이 하나 흐르고잇슬게다。 고기도 만히들고잇겟지……어—배불러라。
이재는 그만두어잡가… 비는 퍼치마는 이다리아래서 자는수밧게……
앗참 하물며 이야기하든것 이저바렷군 에—귀찬어 그만둘가 그만두면 멋하나 그만 해버리지。
그래—그래서 말야 그놈에게 집편의 목소리 경치게 입부드군요 나는 와락 그녀인의 얼굴을 보고십엇스나 꾹참엇지요 그랫드니 이제는 바로 그이의 목성이
"에—듯기실소 그까짓 돼지통 녀편네의속에서나온 자식새기가 나와 무슨상관이잇단말이요 사랑하는 당신과 내사이에서 생겨난 자식이라야 참으로 내사랑하는 자식이되겟지요
여보—어서 아들하나 나어주어……우리의 사랑의 결정인 아주려한 아이를 나어요"
합니다 나는 눈이 화닥진하지는것갓든군요

現代朝鮮文學全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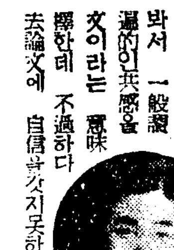
七卷의全集偉容堂堂

——作者의말——

華麗한論爭—朴英熙

『審美的活動의價値規定』이라는 이論文은 일즉이 藝術에잇서서 感情과 情緖와 個人問題를떠나서 너무도 現實的物質的生活의偏見으로 나려감을따러서 文學의길이 香아지며 窒息하게되엿든때에 그傾向을 克服식기위해서 一文을 草하엿든것이다。 이 一文으로 當時의 華麗한論戰이 잇섯든것等으로보아서 나는 이論文의意義를 가지려고하는바이다。

論文의性格—白鐵



이번에 내가 分擔된論文으로서 『文學의個性과 普遍性問題』를擇햇스나 내論文中에서 그것이 特히自信잇는論文인 때문이아니다。다만 테마로 박서 一般讀者에게 普遍的인共感을 가질만한論文이라는 意味에서 손쉽게 擇한데 不過하다 大體나는 내過去論文에 自信을갓지못하는者다。 더구나 이번에 論文을 擇하면서 다시自己評論의 貧弱한 力量을늣겻다。 獨斷이 七分에論理가三分! 거기에 하나의主觀的인 情熱이 겨우內容의 空虛를救하고잇슬뿐이다。

第一回配本 短篇集(上) 三版發賣中
第二回配本 詩歌集 三版發賣中
第三回配本 短篇集(中) 再版發賣中
第四回配本 隨筆紀行集 再版發賣中

五回配本 評論集

全朝鮮讀書界를振撼하는「評論集」의雄姿今日出現!!

暴風雨가튼歡迎裡에『現代朝鮮文學』은回를거듭할사록더욱더욱最高調를呈하여 一回二回配本이 벌서三版이出來하고 三回四回配本도再版이거이 賣盡되여가는中이다。 이제다시第五回配本으로『評論集』이出刊되여滿天下讀書界의人氣를此一卷에모우게되엿다。 이『評論集』은斯界權威들이 그의蘊蓄을기우려쓴巨筆이니만치文學道의闡明과藝術理論의最高指針이아닐수업다 文藝研究家는勿論이오一文化人도아니볼수업는훌늉한典籍임을斷言한다。

——評論集內容——
審美的活動의價値規定(外一篇)—朴英熙
文學과性格(外一篇)—兪鎭午
批評藝術論(外一篇)—金文輯
유고오의詩精神素論(外一篇)—李軒求
유다的인것과文學(外一篇)—金南天
個性과普遍性의問題—白鐵
批評文學을爲하여—金煥泰
古典文學論(外一篇)—李源朝
舊殼에서의脫出—金基鎭
藝術論—梁柱東
센치멘탈論(外一篇)—崔載瑞
希臘古瓶의高調詩—鄭寅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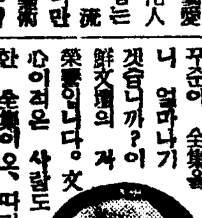
京城太平通一丁目一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四六版三六〇頁 定價一部一圓卄錢
書留送料二十二錢
(一時拂七圓 送料本社부담)

大好評의「評論集」

文學道의闡明—柳致眞

現代文學全集은回를거듭할사록好評에거니와이번五回配本『評論集』은一般文學愛好家는勿論이오一般文化人은누구나아니볼수업는 好著이다。內容이 다 一流評論家의熱筆이니만치文學道의闡明 理論의最高指針이다。敢히讀書界에 推薦하는바이다。

朝鮮文壇의榮譽—梁柱三



朝鮮에선 出版業이 貧弱하고 따라서 文運도 매우微微한모양인데 最近三十年間의 모든文人의力作을 모아 꾸준이 全集을 發行하시니 얼마나 깃븐일입니까? 이는 朝鮮文壇의 자랑이오 榮譽입니다。 文化的事業에 關心이적은 사람도 한번은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번 全集이오 따라서 朝鮮사람의 精神生活에 一大攝作을 주는 巨大한 事業이겟습니다云云。

產業

戰時農產物로서 苧麻栽培有望
苧麻紡績業의原料需要로 今後增產이 益益必要

事變下農產物의 花形은 아무래도 酒精用原料甘藷와 苧麻일것이다 苧麻는 一般必需品及 軍需品의 原料로서 其需要는 자못增大하야 苧麻紡績業은 我國重要工業의 하나가 되엇고 製品은 國民生活及 國防上緊要한 關係를가지게 되엿다 一方其原料의大部分은從來支那로부터 輸入하엿는데 一個年의 輸入數量二千七百萬斤 價額八百萬圓에 達하고잇든것이 事變이 勃發하자 輸入이 杜絶되는 同時에 國內의需要는 增加하는一方 其增產은 國策上 가장 緊要하게되엿다 가령時局이 好轉하야支那로부터 輸入이 復活하드래도支那의 主產地인 揚子江의 奧地는每年水害及共匪의 災禍를입나니 產額과價格變動에 影響하야 原料供給의安定을 缺하고 他面事變前 어미 苧麻製品의 海外輸出의길이 開拓되여 加奈陀南의 漁網으로서 相當히進出하고잇슴을 보드래도此等輸出의 增大를圖하는 同時에 國內原料를自給한다는見地에서 增產이 必要하야各府縣에서이미極力獎勵하고잇다

當局에서는 昭和四年以來 增殖獎勵에 關心을갓고 九年에本格的獎勵에 進出하엿는데 十三年度獎勵金으로서는 廿九萬八千八百圓을 計上하엿다 現在苧麻의國內需要量은 三千萬斤이라고보면 一割程度의 自給바게되지못하고 北支의治安이 回復된다고하드래도 無制限으로 支那產을輸入하리라고는보이지안허 大體普通程度로抑制하고 內地產品保護에 努力하야 不足部分만을支那로부터 輸入할方針이라고觀測된다 따라서國內의 苧麻栽培의餘地도만코 畑作物로서 農家의 收益도 特히現金收入을 增加하는見地에서 生產力이 薄弱한山村地方에서는 더욱有利하게될것이다 그러나 아직一般으로 苧麻에 對한 認識이 깁지못하고栽培에普及치못하엿으므로 其栽培에關하야 [illegible]

【氣候】 苧麻는 너무寒冷한 곳은 適하지안코 [illegible] 一回 東海道、中國、九州方面에서는 三回 臺灣南部에서는 四五回 收穫할수잇스니 어쨋든 忠南韓山에서는 一回收穫할수잇는것과比較하여보면暖地일사록 安全하고 有利하고 一般으로 晩霜부터 여름까지 霜害가만허 生育中의 苧麻가 連日强烈한 日射를 밧지안는것이 조타 大體로 德島、香川、神奈川、大阪等의畑地의 僅少한地方을 除하고 全國的으로 獎勵되여잇다

【土質】 表土가깁고 排水가 佳良한 土壤又는 砂質壤土를理想으로하고 酸性이強한 土壤과 加里石灰가 不足한土地에는 完全한 生育을 遂하기가困難하다

【繁殖法】 繁殖法에는 여러가지가 엇스나 現在가장 確實有效한 方法으로서 吸枝繁殖法을 採用하고잇다 吸枝라는것은 植後二三年을 經過한 株를파내보면 上部에 株가잇서서 그로부터 一株의뿌리가나와잇다 吸枝라는것은 橫으로 간듯게 伸出한것으로 本體는 뿌리가아니고 地下莖으로 外觀은 根과 恰似하다 그러나 表面에 節이잇는데 各節에는 不定芽가잇다 卽 植付에는 이吸枝를 採取하야 剪定鋏又는 葉切로 五六寸씩 細切하야 곳本圃에 播下한다 時期는 四月中旬부터 六月下旬까지 地方事情에 適한 時期를 採用한다 또 吸枝의 切斷은 길사록 活着力이 强하다 다음 注意할것은 栽培經營에잇서서 動力用剝皮機를 使用하는關係上 機械性質에 應하야 栽培地의 選定을 行지안흐면 後日에 不便을 感하게된다 現今 使用하고잇는 剝皮機는 佛國製平型의 數臺으로 모두가 重量四十貫乃至七十貫 從轉에는 重量三四十貫의 石油發動機를 要한다 또 苧麻는有機物이 潤澤한畑地를조화하므로 廐肥堆肥等의供給이容易한 곳으로 選定할것으로 此等 栽培管理는 모두 各府縣에서 其地方에 適合한標準을 定한다

【病害虫】 五月下旬부터中秋까지 全國 어느 地方에나 食葉害虫『眼雀』의 發生을 본다 이것은 初期葉間을 網狀으로食害하고 잇슬때에 粉狀砒酸鉛廿匁을 水一斗에 溶解하야 噴霧器로 撒布하면 驅除할수 잇다 新開墾地에서는 植付二三年만에 往往 白絞羽病이 發生하야 生育中의 莖葉이萎凋枯死한다 이에 對하야서는 其株를 파내서 燒却 하고 被害個所의土壤을飛散치안토록 옴겨다가 『고코충』等으로 移苗한다

苧麻의 收穫回數와 時期는 氣候에依하야 다른데 七月下旬頃 부터 十一月下旬까지이다 苧麻는 大體로 植付後三年째될때부터 本格的收益을 어들수잇는것으로 其纖維製造에는 相當한資本을 要하는것으로 注意치안허서는 아니된다 吸枝苗의 鑑定販賣 會社側과 鑑定하야 販賣價는 一本에二錢으로되여잇스나 從來苧麻는 大體府縣內自給을 原則으로하고 他府縣으로부터의 移植에 限하야 農林省에서 取扱하게되엿다 또 取引價格、纖維의等級及 標準品의 査定取引上條件等에 關하야는府縣販賣組合聯合會와 協定하야 昭和九年(農林省獎勵當初)一等品百斤에 對하야 三十六圓 同十年圓二十四圓 同十一年 同二十七圓五十錢 十二年十一月九日 附協定價(三番刈)로는 一等品百斤當一等品 四十三圓 二等品三十九圓 等外三十五圓程度를 標準으로하고 實物에 依하야 決定하게되엿다

모메꼬產
揮發油·酒精混用法

第七十七議會에서 成立한 揮發油及 酒精混用法은 昭和十三年度부터 施行하게 되엿는데 會社側의 形便에依하야 六個月의 準備期間을 두고 七月一日부터 實行하엿다 揮發油에 酒精을 混用하는 十數個國에 달하므로 我國에서도 지금부터 實施하는것은 決코 일은便은 아니다 揮發油에 混用하는 酒精은 無水酒精이라하야 九九·六%의 것으로 今年은 이것을 自動車用 揮發油 總量의 四分의 一에對하야 五%를 混用하게되엿는데 十九年에는 混用率을 노피고 六年後의 昭和 廿%로합모양이다 이에 問題되는것은 混用하는 酒精은 內地產 一가론 一圓十二錢、獨逸에서 九十六錢五厘가나는것이나 大藏省에서는 混用酒精에限하야 業者에게『가론』當五十四錢으로 直接賣渡하게되여잇다 從來 廿%混用率을 노피면 揮發油『가소린』을 節約할 수 잇다 酒精混用法은 一九三三年 佛蘭西가 率先하야 實施한것으로 獨逸 체코等 二十餘個國에 達하고잇다 混用하면 어떠한 優劣이 잇느가하면 酒精은 氣化熱이 揮發油는 六五·四로 增大한다 [illegible]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⑥
通稱「石版印刷」 精巧한「오푸셋트」

印刷는 近代文明의 最大要業 서양文明의 產物이 發明하고잇지만 라고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것은모두가 木刻物이엇다고한다 近代文明은 古代文明과 달리서 書다 이가운데 木版이 어떤 世紀를 通過하야 永久性을 多分히가지고 經驗하여오다가 紀元을 一千四十年 잇다 그러데 文字는 相當히오랜 宋代에이르러서는 活版이 發明 古代社會에서 發明되엇는바 文 되엿스며 어어反하야 西洋에잇 字가 어떤程度로 普及되고發達 서서는 東洋보다 떨어저서 活 되엇는데 [illegible]

鎭興天然「굴」不漁로 當局에補助申請
種付垂下養殖業者가

【鎭興】 咸南永興灣內 埔貝捕漁 組合區內에 居住하는 二千餘의漁民은 近年에와서 漁業의大不振으로 每日每日의生活難이 莫甚할뿐아니라 그들의 穀食파가 하드래도 無制限으로 支那產을 增加한 人口의率에는 均衡치못하야 四百餘戶의 二千餘住民은 아프로 生活問題의解決이 極히 困難하다고하다 어에그들은 最後의計策으로 外國種付 養殖百餘萬와 垂下養殖 二百餘萬計劃하엿스나 다시여기에는 種付養殖一臺에 十五圓 垂下養殖一臺에 四十圓의資金이 必要하므로 이萬餘圓의 資金은 借金을하지 안흐면 안된다는바 萬餘圓의借金조차 漁民들은 생각에생각을 거듭하다가 水產當局에 資金補助의陳情을 方今 準備中이라는바 하루바삐 資金의補助가잇기를 渴望하는바이라고한다

鯖魚大群襲來
大羽鰮도出現
白洋丸의試驗報告

【淸津】 去三十日朝 淸津港에 入港한 試驗船 白洋丸에서 調査한 近海의 漁況을 보건대 [illegible] 大羽鰮이 出現하엿다는 情報잇서 [illegible] 近海에서 三千貫의 漁獲을 보앗다 [illegible]

養蜂은어떠케할가 ④

收支概算

第一年

支出

分封群二個代	三〇、〇〇圓
巢箱二個代	五、〇〇
飼料代	二、〇〇
巢礎十枚代	二、〇〇
越冬巢箱二個代	六〇

收入無

備考 蜂群代는 地方에依하야 大差가잇다 分封群을 購入한다고하야 一群十五圓을 計上하얏다 巢箱의 價格도 地方에따라 [illegible]

라 木材의價格等이 다른것이나 低廉한것을 擇한다면 石油箱으로 調製할수잇는것이다 以上支出金의 大部分은 固定資本으로서 後에도 남어잇슬것이지만 이것을 損金으로 取扱한다

第二年

支出

蜂群四個(元巢二個分封群二個)	
巢箱二個代	五、〇〇
蜂蜜分離器代	一二、〇〇
飼料代	四、〇〇
巢礎二十枚代	一、〇〇
巢礎三十枚代	四、〇〇
蜜刀二挺代	一、八〇
越冬巢箱二個代	六〇
蜂蜜容器代外雜費	四、五〇
計	三二、九〇
收入	
金	一三、〇〇(收蜜十貫)
差引損金	一九、九〇

備考 强群한 蜂群이면 元巢一個에서 一期에 二個乃至三個의 分封할수잇스나 最初는 技術이 不足하야 元巢一個에서 一個로 分封할수잇다고 限定한다 第二年에 가장 多額을 要하는것은 分離器인데 이것은 近處에 다른 養蜂飼養者가 잇스면 便利하다 共同하야 購入하는것이 第二年에元 一個에서 一個平均五貫 本年에 分封에서도 多少收蜜할수잇스나 을 增殖하엿슬뿐으로 利益은어 [illegible] 들수업는것이다 卽備品에多額의 費用을 要한까닭이다 巢礎가튼것도 一封度(八枚)一圓六十錢을 計上하엿는데 다른養蜂者가잇서서 共同購入하면 一圓四十錢가량에 購入할수가잇다 또本年은 翌年收蜜에備키爲하야 巢礎四十枚를 餘分으로 蜂에게주어 完成巢를 만들게한다 特히 注意를要하는것은 相當히 群數를 增殖하고 시픈것이 人情이나 될수잇는限 群을强盛케하야 翌年收蜜에 備할것이다 蜂群의 强盛을 保持키 爲하야 收蜜치안는것이 利益이다 또蜜價는 一罐(四十七斤入)十圓으로 計算하엿다

第三年

蜂蜜八個(元巢四個分封四個)

支出

巢箱四個代	一〇、〇〇
蒸氣製蠟器代	四、〇〇
飼料代	八、〇〇
巢礎八十枚(十封度)	一六、〇〇
巢框八十枚	五、五〇
越冬箱四個代	一、二〇
蜂蜜容器代外雜費	八、〇〇
計	五二、八〇
收入	二六、〇〇(收蜜二十貫)
差引損金	二六、八〇

備考 給巢後三年까지는 蜂群을 增殖하엿슬뿐으로 利益은어 [illegible]

第四年

蜂群十二個(元巢八個分封四個)

支出

飼養費	二二、〇〇圓
巢箱四個代	一〇、〇〇
容器及雜費	一二、〇〇
巢礎五封度代	八、〇〇
巢框四十枚代	二、八〇
越冬箱四個代	一、二〇
巢箱八個代	五、六〇
計	五一、六〇

收入

蜂蜜五十貫	六五、〇〇
蜜蠟二〇〇匁	二、〇〇
計	六七、〇〇
差引利益金	一五、四〇

四年째부터는 漸次收益이잇고 蜂의管理에도 熟達해온다 三年乃至四年째에는 極力分封을抑制하야 收蜜量의增加를圖하고 强盛群을 維持하는것이 收蜜上必要하다 그러나 如何히 分封을 制止하드래도 多少의分封은實際上不得已하므로써 適宜處置할것이다 (終)

小麥包裝叺에 人位一空使用認容
朝鮮總督府穀物檢查所長 山本壽己談

昨秋以來穀用叺의 拂底는 朝鮮產穀物配給에 重大問題를 惹起하고잇다 이것은 曠古의 大事變과 空前의 大豐作에 際會하야 穀物의 生產과 叺需給의 不均衡을 招來한 結果이다 長期戰下의 各方面에서 多少의不便을 感하고 또이것을 堪耐할수잇는것은 所謂堅忍持久의 精神인데 萬一國民의 主要食糧인 米麥大豆等의 包裝材料가 적어서 配給의 不圓滑을 招來하는것은 極力이를 避할方法을 講究치안허서는아니된다 朝鮮內의 叺의 生產高는 相當히 만흐나 用途도 亦逐年擴大漸增하야 昨今은 叺의 拂底를 招來하야 小麥의 收穫期를 마지해서 叺一枚五十五錢의 高價를 부르는地方도 잇는現狀이다 이때에는當面問題에 困難할뿐아니라 이대로 推移할時는 秋收期의 米穀包裝에 再次昨秋와가튼 窘蹙을보지안흐면 아니될것이므로 此際朝鮮內消費穀物의 包裝叺은 朝鮮穀物檢查令施行規則第十條但書의 規定에 基하야 輸送上支障업는 限下級叺을 使用하야 今秋의 用叺을 얼마간이라도 調節하려고생각한다 더욱이 昨年七月의 小麥標準品查定會의 協議에 基하야鮮內 小麥에 對하야서는 左記와가튼 簡易包裝을 認定하고잇다

(一) 朝鮮內消費의 小麥의包裝에 限하야 從來의 三個所掛를 認容할것

(二) 共同販賣에 附하는者에 限하야 不合格小麥의 簡易包裝을 容認할것

今年은다시

(一) 共同販賣小麥으로서 鍾紡子會社又는 鍾子組合等과 契約한者에 對하야서는 亂俵의 憂慮가업다고 認定하는者에 限하야 穀用叺人位又는 一空叺(人位以上)을 認容할것

(二) 共同販賣小麥又는 仲買人等의 收穫의小麥으로서 製粉會社와 賣買하는者에 잇서서는 亂俵의 憂慮가업다고 認定하는者에限하야 穀用叺人位以上又는

一、最近三個年의小麥의檢查高

昭和十一年度	一、〇五五、四一六叺
同十二年度	一、一二九、二六〇
同十三年度	一、三三七、六一七
平均	一、一七四、一三一

二、最近三個年의小麥移輸出數量

年 別	輸出	移出	移輸出合計
昭和十一年八月	三四石	八二、五七二石	八二、六〇六石
同十二年七月	九〇	一七〇、二八	一七〇、一一八
同十二年八月			
同十三年三月	七八二	四二、八一一	四二、五九三
平均		四〇、八七五	四七、八三九

自昭和十二年八月至同十三年四月

一空叺을認容할것 (註) 輸移出小麥의 包裝은規則에 示하는대로 할것

爾來穀物의包裝은 穀物의運搬性及保存性을增大함에잇는것으로 可及的完全한包裝을 함것이第一義이지만 時와環境에依하야서는 社會經濟事情을 無視하고까지包裝本來의 機能만에 重點을置할수는업다 此意味에잇서서 朝鮮內移動의小麥에 對하야서는 運搬保存의 最小限度에 머믈러人位叺의使用을 許可한것이다 또從來內地의 農林省米穀事務所에서는 朝鮮叺의 一空叺을 特殊方面에再使用하고잇는 實狀等도參酌하야 一空叺가튼것도 其强度가適히 減退되지안흔者에 限하야 使用을 許可하야써 現下의特別한 事情에 應한다

滿洲國에서 小麥粉逆輸入
輸出統制結果의奇現象

【淸津】 滿洲國에서는 通談木材 毛皮等 國內產品의 對外輸出을 統制하야 經濟界에 注目을끌고잇다 其結果로 日滿製粉의 小麥粉二千噸이 淸津經由로 滿洲奧地에 逆輸入되고잇는데 이逆輸入의 奇現象은 當分間繼續될것이라하야 注目을끌고 잇다

春繭共販

【鎭興】 咸南永興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五日부터 鎭坪面事務所에서 春繭共販을 開始하엿다는바 特히今年에는 時局關係로蠶種一枚掃立에서 繭二貫以上의 收繭이잇다는바 價格은昨年보다좀싸서 一般生產者들은販賣키를 躊躇한다고한다 價格表(一貫目)

優等 三、四七	特等 三、一	七 一等 二、九二	二等 二、
六四 三等 二、三七	四等 二、	〇九 等外 一、八二	中繭 一、
二七 玉繭 一、二七			

【天安】 忠南天安郡의春繭共販賣는 지난十六日에 終了되엿는바 其數量은 五千六百八十六貫四百五十四匁이고 其代價는一萬六千一百四十八圓十五錢이라는바 前年에比하면 九十二貫九十二匁 外代價로 一萬九百二十五圓五十九錢이各各減少되엿다는바 그減少된原因은 昨冬의酷寒과 今春의長旱으로 桑葉의發育이잘되지못한것과 其價格이 每貫에七十錢乃至一圓以上이 低下한 關係라 한다

優等	三圓二十六錢
特等	三圓四十二錢
優等	三圓三十二錢
一等	三圓二十錢
一等	二圓八十四錢
二等	二圓五十八錢
三等	二圓三十三錢
四等	二圓七錢
等外	一圓八十一錢
屑繭上	一圓四十二錢
屑繭下	七十一錢
玉繭上	一圓四十二錢
玉繭下	七十二錢

어재? 이렇한적은분량으로도 잘듯는가

肝油는「먹기거북한것」「반듯이 胃腸에 고장을일으키는것」이란 걱정을 一變식힌時代가 왓읍니다 지금까지에는 肝油가 좋은줄은아나 그비린내나는것을 억지로 먹어야되거나 혹은많은分量을 먹어야되야 한그릇 부그릇……혹은 포도알만한 大粒의肝油球를 十餘個식이나 먹어야됨으로 그실중과 고통은 적지않엇으나 이제는 그런걱정이 조곰도 必要없게되엇읍니다 즉 近代化된 一粒肝油 하리바는 진국의 肝油로써 眞珠만한 적은알이니 하로에 불과 三—四粒의 服用으로 충분한效果를 얻게하는 약이 발명된까닭입니다 그러면 엇재 하리바가 적은分量으로도 그렇게 적확한 효과가잇느냐하면 다음과같은 세가지조건이 구비된까닭입니다

1 지금까지의 肝油는 대개가 대구(鱈)에서 짜낸肝油이엿으니 그肝油에比하야 百倍前後나 濃厚한 진국의肝油로써 귀중한 영양소인비타민A와D가 天然的으로 豐富히 含有되어잇는 高級肝油를 하리바는原料로한까닭에 在來의肝油의 用量의數十分之一의 極少量으로도충분합니다

2 그렇안 高級肝油를 油塊그대로 特許方法으로써 糖衣小粒으로만든것인만큼 조곰도 胃에고장을일으키는법이없이 곧 녹아서 잘吸收되야 우수한效果를나타내입니다 즉 재래의肝油球등은 消化가좋지못한 재라진劑의 가푸세루를써서 製劑한까닭에 消化가되지않고 폐해가많엇읍니다

3 在來의肝油는 肝油중에 가장 귀중한비타민의含有量이 모도 달너서 正確한用量을 정하야 복용하실수없엇으나 이제는 그런염여도없게되엇읍니다 즉 하리바는 그含有量이 정확하도록 動物試驗 比色試驗이외에 現今 가장 正確하다고 승인되고잇는 分光寫眞과 放射線寫眞으로써 科學的으로 正確하고도 더욱 均等하게測定되어잇는까닭입니다

……以上과같은 三大條件을가지고잇는까닭에 하리바는 在來의肝油의 약점과 결함을 모도 보충식힌 완전한약제임으로 어느분을물론하고 손쉽게 복용하실수잇으니 속히 병고에서버서나주시기바람니다

하리바를복용하서야될분…

산전산후의부인 건전한體格은母體內와乳兒時代에 결정되는것임으로 미전에충부히보급과영양을주기위하야

발육시기의아동 어시거에는 병균과病患에침입당하기쉬운때인만큼抗病力을 늘왕성케하여주어야됩니다

呼吸器가약한분 예방혹은치료에는반듯이粘膜의防壁을強化식혀야됨

적은량으로도 잘듯는糖衣小粒

一粒肝油 ハリバ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一圓五十錢

—東京·大阪—
田邊商店
HV-K-32

家庭不和가큰禍根 全家族一時俱沒

아들內外가縊首하자其母도따라自決

錦山郡下山幕의慘劇

【錦山】 한집식구세사람이 한날 한시 한장소에서 한만큼이 세상을저주하야 목을매어 일가족이 몰사한 비참참절한 비극이 지난팔일이십팔일 오후삼시경에 금산군금산면신대리(錦山郡錦山面新垈里)산막(山幕) 양수복(梁水福)의 가정에서 연출되엿다 [illegible]

中途退學生激增

昨年中慶南道內에서六千餘名

學資關係가重大原因

【慶南支社發】 농촌주민의 경제생활과 정비례하야 초등학교아동들의 중도퇴학자가 격증하고잇는데 경남도학무과(學務課)의 조사에의하면 소화십이년도중 조선아동을 수용한 소학교 이백육십칠교에 수용된아동 구만이천팔십칠명중 중도퇴학한 아동이 [illegible]

洋服代橫領犯

懲役十月言渡

【群山】 군산 삼중정양복점주임(群山三中井洋服店主任) 양흥업(楊興業)은 [illegible]

漁船業者에福音

平北水產會서二十萬圓經費로

救濟事業을遂實施

【新義州】 수산왕국으로써 일홈을 날리고잇는 평북도에서는 도내 각어선업자의 적극적지도 장려에대하야 [illegible]

洪城釀造業合同은 結局一會社로統合

【洪城】 홍성세무서(洪城稅務署)관내 [illegible]

第二店員橫領 一年半役言渡

【咸南支社發】 [illegible]

長老教老會總會

開催地變更

新義州에서平壤으로

【平南支社發】 금년도의 조선장로교총회 [illegible]

忠北各種共販 義務貯金獎勵

【淸州】 [illegible]

平壤勞組單一化

實現期待는困難

【平南支社發】 전시체제하에 인적자원(人的資源)노동력의 중요성은 재론을 요치안는것이어니와 평양의 각노동조합도 보조를 마추어 시국에 응하고잇는바이 기회에 이각노동조합을 단일단체로 통일결성하려는운동이 얼마전부터 대동동지회(大同同志會)회장선우연(鮮于鉉)씨를 중심으로 이러나고잇섯는데 각조합이 대체로안에는찬성하나 각조합이모두 개개의구체적사정을 가지고 잇는만큼 오늘에시급히 이를실현함은 곤난하리라고 관계방면에서는보고잇다

數萬圓橫領犯 大連서逮捕押來

【鎭南浦】 진남포삼화정(三和町) [illegible]

金斗七遂自首!

新義州憲兵隊서取調

【平南支社發】 [illegible]

大詐欺賭博犯

平壤署에서檢擧

【平南支社發】 [illegible]

筆行商急死

【咸南支社】 [illegible]

慈城鑛山에서 鑛夫二名重傷

【平南支社發】 연발하는 광산폭발사건—지난이십륙일 오후두시십오분경 평원군동암면(平原郡東岩面)에잇는 조선광업개발회사(朝鮮鑛業開發會社)경영의 자성광산(慈城鑛山)제이항의 지하일천오백척의 항내에서 광부 [illegible] 이 착암(鑿岩)공사를 할때 동일부근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여 모두비사의 중상을입엇는데 아마 작일의폭파공사시에 불발한것이 나머잇다 착암기에다어 폭발한모양이라고한다

妙齡處女脫線

不義의씨를壓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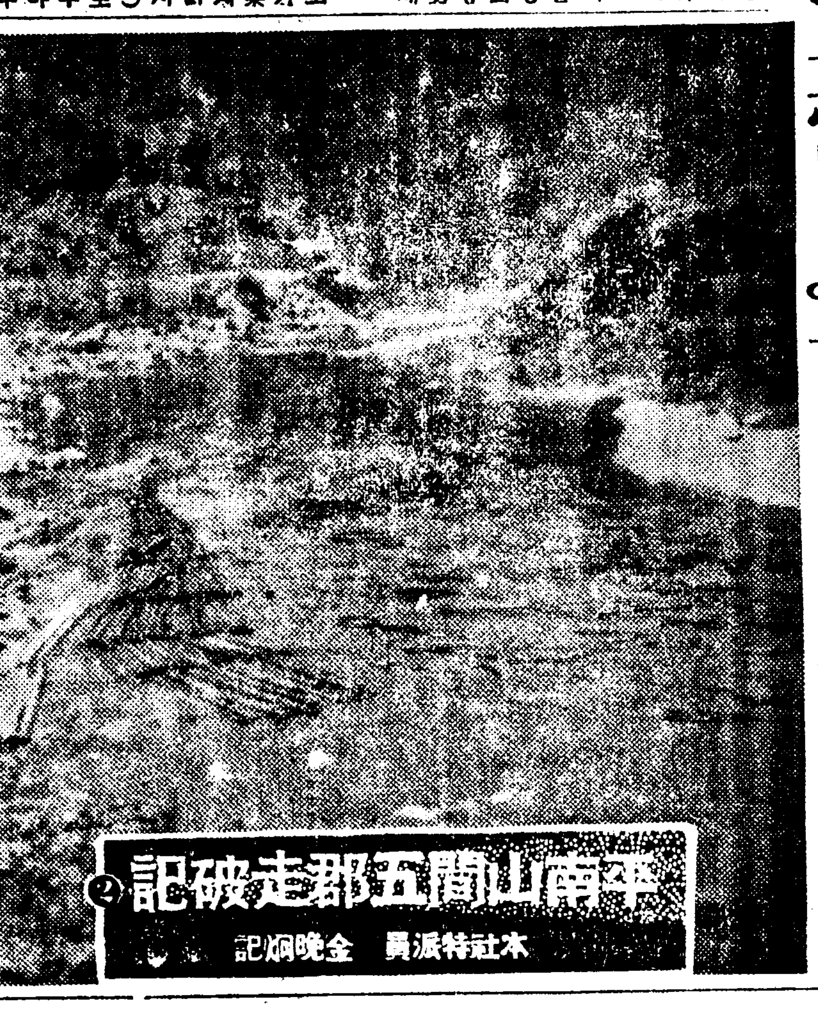
【伊川】 [illegible] 어린애를 분만하자 세상의 이목이 무서워서 아궁에 너허 태워버린 잔인한 사실이 탄로되야 그만 법의 심판을 밧게된 가엽은 여자가 잇다 문제의 주인공은 이천군 용궁면 무릉리(伊川郡龍宮面武陵里)황모(黃某)의딸황씨(黃氏)로 [illegible]

疊石奔流의溪谷! "스릴"에찬筏夫生活

山明水麗, 產金도豐富

李達篤

[illegible]



平南山間五郡走破記 ②

本社特派員 金晚炯記

林巨正 【127】

長篇小說 洪碧初 作 / 金 龍 (?) 畫

피 리 (八)

[illegible]

世界的
強壯劑
네오톤
效果 本位

003386

夏瘦豫防은只今부터

날이漸漸더워짐을따라 一般的으로 食慾이줄고 體力이減退되는까닭에平素에 病弱한분은 一層더衰弱하게되여 呼吸器虛弱症・貧血・胃腸病等의慢性病이되기쉬웁고 健康한사람이라도 口味가업서지고體重이줄어消化不良과 夏瘦症等에 걸리기가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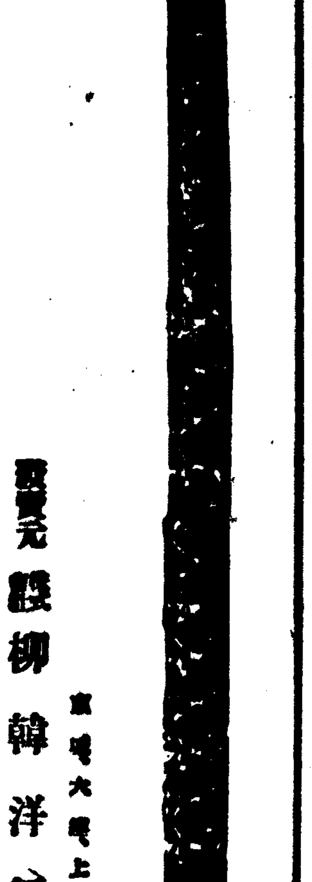
이것은 氣溫이노파짐을따라 抵抗力이弱해지고 食慾이減退되는것이니 大槪夏節에는 淡泊한菜食을 主로하게되므로 비타민A・D가不足하야 榮養供給이 急速하게低下되는關係입니다。

그러므로 暑炎이오기前에 體內에榮養을充實히하고 抵抗力을强化하야 體力을增强하면 暑炎이오드래도 夏瘦症이나 其他慢性病의誘發을 防止할수잇습니다。

世界的强壯劑네오톤(NEOTONE) 은 人體에絶對必要한 各비타민의榮養素를 供給하는同時에 呼吸器와 胃腸을튼튼히하는 有効成分으로 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 食慾을增進하고體重을增加하며身體를强壯케하는 再建設的作用이 卓越하므로 平素부터病弱한분이나 急速한榮養低下로 身體의抵抗力이 衰退하여가는분은 本劑로써 榮養을供給하고 體力을增進시켜 夏瘦症으로因한傳染病・呼吸器虛弱・胃腸病等을 防止하여야됩니다。

適應症 肺結核, 神經衰弱, 萎黃病, 貧血症, 腺病質, 食慾不進, 肋膜炎, 產前產後, 急慢性氣管支加答兒, 一般虛弱, 榮養障碍, 心臟疾患, 病後恢復期

(本劑를服用하실때는 먼저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包裝 小瓶 中罐 大罐

(全國有名藥房販賣)

發賣元 醴柳韓洋行 京城大平通

戰時經濟體制下 銀行上期決算

預金의增加顯著, 貸出은減少

收益良好, 業績은順調

城內各銀行은 六月末日로서上半期決算을 끗막고 今月下旬或은 來月中旬에 定時總會를開催하야 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上半期各銀行의 業績을 綜合槪觀하면 戰時經濟體制下에 잇서서各種의 統制立法에依한 制限抑制가잇섯슴에도 不拘하고 各行이모두 自制한結果 順調한成績을 내이고잇다

即預金은 農作米價高의 潤澤을바든 農村經濟力의 充實과事變에依한 生産力擴充을 目的으로하는 各種工業、工事資金의撤布로서 前期의 金融逼迫에反하야 期初부터 資金이 潤澤하되야 顯著한 預金增加를보이고잇다 一方貸出은 資金調整法의關係上自然抑制된후에 米穀資金等의 順調한 回收로서 相對的으로減少하고잇스나 預金增加에依한 預金「코스트」의低下는收益狀態를良好하게하엿스며 또固定債權의 整理進捗에依하야 資金內容이 充實하여지는等 퍽順調로운決算이다 그러므로 銀行에따라서는 公表利益을增加하고잇는곳도잇스나 利益은社內保留或은諸銷却에充當하고 時局關係上配當은그만두고 配當은各行이모두据置로할豫定이라한다

各行業績

鮮銀 各支店의 報告未着으로 決算數字는不明하나 預金의增加와 貸出의順調한推移는 業績을一層良好하게하고 一方北支의業務擴張에依하야 前期에繼續하야 良好한데利益은特融其他諸銷却에大部分을充當하고公表利益九十餘萬圓을計上할豫定으로 配當은 年四分据置로內定하엿다 總會는 八月十二、三日頃

殖銀 預金貸出의數字는不明하나 大體로 預金은 著增하고貸出도 期初보다 少增하고 收益은 前期回收를보이고잇다 純益公表利益은 二百二十三萬七千四百六十八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一萬一千七百三十二圓을 增加하엿다 配當은八分据置의 豫定이오 總會는八月十三、四日의 豫定

商銀 期末預金은 大千八百八十四萬九千七百三十六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一千二百五十萬圓의增加 貸出은大千二百六十六萬四千百九十五圓으로 六百八十萬圓의 減少로서即同行으로서는 이러한 預金超過는 未曾有의일이요 그만큼 內容의良化를보이고잇다 公表利益은 大體十七萬圓 가량으로 前期와가티 配當은 三分据置의豫定이며總會는七月二十三日의豫定

漢銀 期末預金은 三千七百萬圓으로 前期에 比하야 九百七十六萬一千百十六萬六千圓의 增加 貸出은 三千八百二十二萬九千圓으로 前期末에比하야 九十二萬二千九百八十九圓의 增加、利益은 九萬四千五百三十二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一千五百十圓의少增 配當은 三分据置로內定 七月二十五日總會를豫定

東銀 期末預金은 二千三十二萬七千圓으로前期에比하야 四百九十二萬九千圓의增加 貸出은 二千三百三十一萬二千五百七十九圓으로 前期에比하야 百九十六萬八千圓의減少 公表利益은 十二萬七千四百五十七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二萬一千圓의增加인데 配當은 三分据置의豫定 總會는七月二十五日豫定

貯銀 期末預金은 六千三百四十六萬圓으로前期에 比하야 五百萬圓 貸出은二千六百四十二萬圓으로 前期에比하야 百十萬圓減少有價證券所持는 三千六百五十萬圓으로 前期에 比하야 五百六十萬圓의增加 積立金은 八千七百五十萬圓으로 一千十七萬圓의 增加이다

(單位圓)

總利益金	二、三四三、四五四
總損失金	二、〇〇四、八三一
差減	三三八、六二三
前期繰越金	六二、八五〇
合計	四〇一、四七三

以上과가타야 前期와 大體로不變이고 配當은八分据置 總會는七月二十五日豫定

商銀은預金超過 未曾有의現象

朝鮮의「地元」銀行은 從來預金一常貸出超過의 變則的現象이 常事로 되여잇섯는데 이것은 地元의 資金力의 不足과 産業發達上의 必要에 依하야 貸出의 均衡을 엇지못하고 恒常 貸出超過의 原因이 잇는 朝鮮經濟의 特性에 因되는것이다 그러데 最近에 이르러 預金貸出의「바란스」가 破綻되는 傾向이 생기어 就中朝鮮商業銀行에 잇서서는 上期末의 帳面을 보면 預金이 六千八百八十四萬九千圓에 對하야 貸出이 六千二百六十六萬四千圓에 達하야 一時一千六百萬圓에 達하고 도리어 預金超過가 超過를 보고잇는 時期에 比較하면 隔世之觀이 잇다 그理由에 對해서는

一、反對로 政府資金의 撤布等에 依한 貯蓄獎勵、農村의活況

一、預金이 著增하엿다

二、財界의 情勢가 貸出의 抑制

等을 들 수 잇는데 朝鮮의 銀行으로서는 未曾有의 일로 注目되고 잇다한다

十二年度米生産額 七億七千七百萬圓

大正九年의最高記錄을突破

米作農家 一戶平均百圓增收

昭和十二年度의 米生産은 水稻二千六百四十五萬三千九百三十四石、陸稻 三十四萬二千十六石 合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으로서 그價格은 七億七千七百二萬七千四百九十二圓에 達하야 大正九年의 最高生産과 價格을 突破하엿다

以上昨年의生産을 前年에比컨대 收穫에잇서서 七百三十八萬六千百八十七石、卽三割八分一厘의 增加이며 價格에잇서서 二億三千六百五十七萬六千五百四十四圓으로서 四割二分八厘의 增加이다 이것을米作農家二百三十萬餘戶에 쪼개보면 一戶平均百圓의增收이며 全農家三百六萬餘戶에 쪼개보드라도 一戶平均八十圓의增加이다 이것은米價의 騰貴가一石一圓十六錢式의 增加인때문으로 石數보다도 價格上騰增을示한것이다 그리하야 只今까지의 最高記錄인 大正九年의 一千八百七十萬餘石、六億九千百五十萬圓을 突破하고 남음이잇다

一般態度로서 金融의硬化를 防止하고잇다 그러나一時보다는 相當히明朗化하여잇스므로 今後는 若干圓滑히 起債할수잇게되깃다 天津銀行의 買收는 七分、進行되고잇다 買收라하여도 株式의『肩替』인데 上海銀行과가티 內容이조흔銀行으로 地場金融을完全히遂行할수잇슬것이다

三A新高價 四百十圓

昨日新高價를내인 京城紡織三A는一日은 四百十圓으로 또五圓高이엇다

六月末現在 水稻移秧率 九割二分八厘

慶南北、咸北外는完了

農林局發表=六月三十日 現在로서 全朝鮮水稻 移秧面積은 百五十一萬一千九百三十七町五百步로서 移秧豫定面積의 九割二分八厘를 示하엿다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九分九厘、前五個年平均에 比하면 一割一分九厘、六月二十日 現在에比하면三割一分一厘의 各進捗이오 慶南北咸北을除하고 거의移秧을完了하얏다

六月三十日現在移秧狀況

道名	植付濟面積(町)	同上比率(割)
京畿道	一五六、九六四	九八
忠淸北道	六六、四〇一	九〇
忠淸南道	一五一、六六二	九三
全羅北道	一六三、三一八	九五
全羅南道	一九二、二五五	九七
慶尙北道	一三四、一六一	七五
慶尙南道	一四〇、一五三	八四
黃海道	一三〇、四六〇	九七
平安南道	八〇、一〇四	九七
平安北道	九四、一四〇	九六
江原道	八四、三二一	九九
咸鏡南道	六〇、三一六	九八
咸鏡北道	一六、七〇五	八三
計	一、五一一、九三七	九三

鋼材販賣組合 創立總會開催

朝鮮內에잇는 鋼材販賣業者는 同業者의强化를 企圖하고 株式會社橋本商會外十七名의 發起로 同業組合의結成에 着手하엿는데 그事業目的은

一、鋼材販賣價格의統制

二、鋼材販賣數量의統制

三、鋼材需給關係의調査研究

四、組合員相互間의連絡、共助及營業統制

五、組合員에對한 業務의指導

六、販賣競爭의防止

販賣統制와 業者의改善發達을 促進하기爲하야 共同施設을하기로 하고 七月一日正午부터 府民館에서 朝鮮鋼材販賣業組合創立總會를開催하야 同總會에잇서서左記事項을 附議하고 다시閉會後는 同所에서 隔意업는意見을交換코저 座談會도開催하얏다

▲總會附議事項

一、組合創立事項의報告에關한件

一、檢査後의調査事項報告承認에關한件

一、定款의承認에關한件

一、役員選擧의件

北支事務協議

松原鮮銀總裁談

渡東中이든 松原鮮銀總裁는三十日午後一時三十五分着『아까쓰끼』로 歸任하엿는데 如左히말하엿다

北支의新情勢에鑑하야 鮮銀으로서도 諸種事務上의 連絡이必要하므로 來月四、五日頃北京에 在支各支店出張所長을 集合하야 事務協議會議를 開催할豫定이오 色部理事가出席統轄하기로되엿다 任期滿了의 色部理事後任은大藏省에서 오기로 되엿는데 아직누구라고 明言할수는업다 短期米金融은 極히平穩하다 短資市場은 依然膨脹되고 잇스나 長期資金市場은 興銀이 퍽愼重

羊毛等輸出入

臨時輸出入措置法으로 許可를要케되엇다

滿洲羊毛의輸入은 通商擁護法에基하야 許可制를取하고잇든바 同法은 六月三十日로서 廢止하기로되엿스므로 다시一日付府令一三七號로서 輸出入臨時措置法에基한命令을 改正하야 이에依하기로하고 一日付官報號外로公布되엿다 또同改正에依하야 羊毛、豚毛、山羊毛、駱駝毛、毛叉는 綿屑 及襤褸 及牛皮의 輸出入도許可를要하게되엿다 또輸出時期는 從來屆出에依하야 이것을變更할수잇섯스나 그變更도許可가 必要하게되엿다한다

愛國公債賣盡

總額六十六萬六千圓

第四回支那事變國債의 遞信局

工事契約

一億七千萬圓

六月中의全朝鮮土木建築工事의契約高는一千九百萬圓에達하야 未曾有의增加를보엿는데 이結果六月末現在全朝鮮工事契約高는 一億七千萬圓에達하고잇다

朝鮮對外國貿易

上半期 出超三百十五萬圓

總督府發表에依한 一月以降六月까지의 對外國輸出入品 價額은 如左하다

▲輸出에 잇서서 朝鮮産은四千四百十七萬二千圓으로서 前年同期에比하야 一千百三十萬三千圓의 增加이오 內地産은 二千一百二十四萬二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千二百五十六萬八千圓의 增加를 보이엇다。

▲輸入은六千八百八萬八千圓이여서 五百二十一萬六千圓의減으로二百十五萬四千圓의 出超를示하고잇다

七萬五千圓의增加、外國産은九十萬五千圓으로 三百四十一萬一千圓의 減少로서 總輸出額은七六百十六萬四千圓으로 四百六十

達城重石鑛開發

小林鑛業에서 曩者 買收한大邱郊外達城重石鑛은 目下從來의 採鑛法에 依하야 事業을 繼續하고잇는데 今番廿萬圓投入하야 選鑛所를 新設하기로되엿다 이選鑛設備가 完成되면 日增『텅그스텐』十톤의 採鑛이 可能하게된다고

龍山工作總會

龍山工作에서는 三十日 同社에서 第十七期 決算總會를開催하엿는데 一割配當을 異議업시 可決하엿다

鐵道局決算

純益廿九萬五千圓

昭和十二年度 鐵道局歲入歲出의決算은 요지음에 終了되엿는대 歲入經常部는 一億二千六百三十九萬二千八百八十七圓八十八錢이며 歲出經常部는 九千四百二十八萬九千九百二十圓三十四錢으로 差引益金은 二十九萬五千四百二十四圓五十四錢이엿다 이것을 前年度의實績에比하면 鐵道收入에잇서 二千二百七萬五千圓餘 即二割一分一厘强의 增加이다 그中에서 旅客收入은 五百五十九萬二千圓餘 即一割七分五厘强이며 貨物收入은 七百四十十九萬五千圓 即二割二分三厘强의 增加이다 右 歲出經常部中의 用에 잇서서는 一千七百八十八萬七千圓餘即 二割三分四厘强의 增加어어서前年度에比하면差引益金은 四百十八萬八千圓餘即 一割四分五厘强의增加이다 또歲出臨時部中建設費는 主로中央線의 一千四百五十九萬五千圓餘、滿浦線에 五百二十九萬七千圓餘、東海線에 三百六十六萬六千圓餘、惠山線에 二百三十五萬六千圓餘、平元線에 百六十二萬八千圓餘、東海線에 百三十七萬六千圓餘를 支出하엿다 改良費는 主로 車輛費 百三十七萬六千圓餘、線路改良의 一千三百九十八萬三千圓餘 橋梁改良의 四百八萬九千圓餘、驛舍改良의 三百十七萬九千圓餘 買收線改良의 二百六十五萬七千圓餘 大田、永登浦間複線工事에 一百三十三萬七千圓餘 釜山、三浪津間複線工事에 百六十四萬二千圓餘 停車場의 改築費에 百六十一萬六千圓餘를 支出하엿다한다

朝郵定州丸代船

過般坐礁한 朝鮮郵船社船定州丸은 目下釜山重工業船渠에서修繕中으로 來月十日까지에 出渠하게될것이다 代船으로 定期航路에 復歸할터인데 그때까지 代船으로 傭船中인 江龍丸(一、五〇〇噸)을 一航海식 江龍丸의 積荷는 順吉丸(一、〇〇〇噸) 熱田丸(一、〇〇〇噸)으로 運搬하기로 하엿다

○朝運職制一部改正=朝鮮運送에서는 今般職制의 改正을하기로되엿는데 改正의要點은 如左하며 近近 人事發令과가티 發表實施할터이라한다

一、營業課를 公用課、陸運課로 二分함

二、現在의營業、庶務、自動車三課長의重役兼任을 廢止하고社員課長을任命함

三、右로서 增田 高瀨 永井의三取締役課長은 取締役으로서 各各所管事項을 監督하기로되엿다고

中小商工業實情

調査에着手

總督府에서對策考究

總督府에서는 物資輸入의制限、軍需工業의擴充 原料의使用制限等等 戰時體制强化에따라 中小商工業의影響이 大端히甚大한現情에鑑하야 어의對策을 考究하기爲하야 全朝鮮에亘하야 그實情을調査하기로하고 三十日그調査要項을如左히各道에通牒하엿다

一、中小工業에미친影響

가、原料의取得狀況

나、生産狀況

다、就業의狀況

二、時局의影響에對한救濟施設

가、從來道其他의機關에서實施한施設

나、將來施設이必要한事項(實施方法其他)

滿洲北支에 種牡羊供給

總督府에서는滿洲及北支의 緬羊事業援助를 爲하야 同方面에 種牡羊을 供給하려고 調

飯野汽船에서 朝鮮沿岸就航

【京都電話同盟】日本海沿岸諸港과朝鮮沿岸諸港과의 貨物輻輳를緩和키爲하야 京都府中舞鶴町飯野汽船會社에서는 七月二日부터起點舞鶴港、終點朝鮮鎭南浦港(寄航地群山、木浦、仁川)月二回定期航路를 開始할터인데 就航船은泰福丸及大黑丸이라한다

配定은最初四十五萬圓이엇스나申込激增으로 다시 二十萬五千圓을追加 또다시一萬一千圓을 再追加하야 計六十六萬六千圓으로되엿는데 期限內인 六月三十日로서 全部賣出이 終了되야 好成績을내엿다고한다

朝鮮銀行도 停年制實施

朝鮮銀行의 停年制實施는 一兩年前 臺灣銀行의 實行에따라 時期의 問題로되여잇섯스나 加藤前總裁는 獨特의 抱負로 斷然 拒否하고잇던것인데 (行員으로부터要望도잇서) 드디어 下半期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一流銀行會社와가티 停年을 五十五歲로하고 實施初年度는 一個年의猶餘期間을 두기로되엿는데 이것이適用되는 行員은 約十名內外 幹部級에서는東京支店支配人 吉田兼三郞氏가잇다고

査中인데 大體로 如左한 頭數의 供給이可能하다한다(單位頭)

昭和十三年	一、六〇二
十四年	五、七〇五
十五年	七、九四〇
十六年	一一、〇二五
十七年	一四、三一〇
十八年	一六、八一六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仁川期米先限	三一、三〇	
大阪期米先限	三一、三〇	
京城正米(一等)	三一、三四	不變
京城白米(正)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고무FAQ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朝新	三一、二五	不變
東新	三一、九五	一〇
鐘紡	二二八	低
◆商品 (先期限單位)		
綿絲	[illegible]	
人絹	一六〇	
砂糖	二一六	

株式 鐘紡飛崩 慘落

今日의市勢(一日)

前場鐘紡低 今朝는 東新百二十四圓丁에 一圓二高、鐘紡二百二十圓으로 九高로 小戾寄付하엿스나 다시 賣叩되고 鐘紡이도 惡化되어 底不知의 落潮로 드디어 二百二十圓大關門이 깨어저 二百十九圓八十一圓丁에 暴落大引되고 東新도 百三十一圓丁에 追伴低落이다가 二十一圓丁大引、朝新도 三十三圓五에 不勢大引이엇다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百三十二圓九八高、鐘紡二百十九圓丁으로 八低寄、鐘紡은 二百十六圓까지 暴落하엿다가 結局二百十六圓으로 大引後 戾大引

底不知！

鐘紡二百廿圓割

物資動員計畫、綿製品管理로增資發表에不拘코 大下放된 鐘紡은 昨日配當落에어어 今朝도 人氣極度惡化하야 드디어二百二十圓의 關門까지깨어저서 東京二百十九圓三 當地九圓八로 瓦落되엇다 分岐前價에서 보면 二十五圓低이다 鐘紡倍額增資、實質的二倍增資에對한 採算觀은 그計算이區區하나 大體로 弱氣二百十七圓、强氣 二百三十四圓 等價二百六十圓等 不一하고 株界極度不振時代이라 採算을云云할수업는 實情이다

鐘紡實業의事業

이번에새로생길 鐘紡實業會社(資本金六千萬圓)는 鐘紡經營인 纖維原料、化學工業、鑛山業을主로서 滿支方面의 諸事業의經營에主力을注하는同時에 持株會社로서도 新規計劃事業의 支配도行하기로되어 어에依하야 大鐘紡의『코체른』化하야 將來의飛躍에備하리라한다

反戾待에無戾

자수株式市場이업서질것이아니오 鐘紡으로말하드래도 事業株의花形인만큼 더구나 鐘紡의宿題인增資까지 發表되엇이니 探算無視의賣一貫도 一考要할것이오 東新도 百五十圓의大保合圈에서 約二十圓棒下까지 왓스니 아무리 東新鐘紡가는投機株의株價訂正時代라할지라도 此邊一戾가 當然하리라하야 비록弱氣라할지라도 突込지안코 戾待이나 市勢는 및빠진시루가티 떠러지기만하야 市場은暗然케하고잇고 觀測에依하야서는 投機株는同鬪으로갈것인가 果如何?

國債買氣擡頭

【東京電話同盟】下期初의 金融은 閑散無事하며 推移되엇스므로 人氣大體强하야 甲號五分利二回五分利五錢高 一、二回四分利는 融資側의買物에 散見되여서 時에十錢高를示하엿다 最近株界의 人氣不良으로 前途難觀으로

市場小感

(株)……分岐前價에 比하야鐘紡三十圓低、東新二十圓低◆一週間에이만큼 棒下되엇스니 戾期待는當然◆그러나無戾續崩하니기막히는노릇 ◆今前場의 場人은 市勢가아조 및빠젓드나고야단◆戰時體制를 새삼스럽게 認識한까닭이라지만 너무 甚하다고 歎息◆第一次分岐에는『마버리』들이먹엇고其後一戾期로 途轉買해서 狼狽본사람이 만은모양◆保合때는保合이래서걱정 市勢가大動搖되면 호걱서걱정◆그는何如튼 市勢는쓰러던잇스니 戾賣有利다아니할수업는듯

(米)……今朝는九月限이發會되엿다 阪地는二十丁下鞘 東京은三丁下鞘 當地는同鞘로 맛처버린는觀이不無◆發會直後에 若干低落을示現하나 昨年과가티先低後高의序幕이 展開될지 누가알라?◆正米는依然强硬하야 昨日도七十錢 今日도七十錢으로容易히低落을不許◆正米化하는 者는 亦然九十錢을割破하지못하고 强한反하고도 處味가不無◆이를두러는 正米보다天候의如何로써 勝負를決할時期!九限의 前途果如何?

期米 同鞘發會 底堅

前場少弱 今朝阪地는 中限五圓〇九錢인 九丁高로 新甫九月限은 卅四圓八十九錢인 廿丁下鞘로 發會되고 東京은 中限四圓九十七錢 新甫卅四圓九十四錢인 三丁下鞘를 伴하야 當限은 一圓九十三錢 中限은 二圓十九錢인 納會價의 同價으로 新甫九月限亦三十二圓十九錢의無鞘로 發會된後阪地稍漸低移로六節八十二錢의低落을 伴하야 七節〇二錢의로反落하엿다가 結局阪地八十八錢高보고 十一錢에止揚하엿다

後場保合 後場은 三十二圓十三錢인 二丁高로 始場後二節 十五錢으로 阪地五六節의八十七錢을 보고 三四五節 同價의 十二錢이엇다

當地無鞘發會

同時阪仁縮鞘

昨年同期의九月限은 當地十二丁下鞘 阪地二十三丁下鞘發會에反하야 今年은當地無鞘 阪地는 二十丁下鞘로 阪仁共히海下鞘乃至無鞘로發會되엿다 要하면 今年의天候는 昨年以上의 好順임에도不拘하고 薄鞘임은 今後米價의低落을期待하야 (하자만는前提의行動인것갓다) 그러고當地의無鞘는 오히려底堅을意味한것으로볼수잇을뿐더러 阪仁의鞘가 爾來二百八十餘丁까지 擴大된만큼 多少縮少하여도 無妨하다는見地에서 買方의防戰的買物이 現出하야그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稻熱病이可畏

頭上은順調나

移秧期에 入한 以來 頭上天候의 順調로 內鮮各地共히 不動이며 本年은 稻作이 大體로 順調하야 何等의 憂慮가 업슬것으로 期待되엿섯는데 京城附近을 비롯하야 各地에 稻熱病이 流行되는 모양이라 이에 對하야 事實로 萬一을 恐하는 農家의 慘憺하든 不安을 加하게 되엿다

[illegible]

正米 依然不變 保勢

京城弱含 天候快晴으로 人氣는 旺盛하야 淸算一齊下鞘發會를보고 保合乃至五錢低의 弱含이엿다 ㊀二等三一、七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一三、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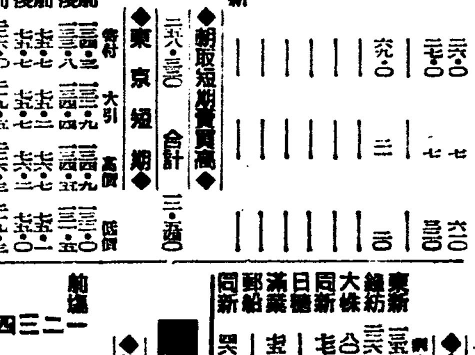
仁川保合 各地新甫는 一齊下鞘이나 所持側의 賣惜으로 賣物薄이며 依然한 內地入注不振으로 强硬하야 雙方이모두新材料待로 積極進出이업서 唱價도結局 昨日同價로 保合이며 ㊀穀良二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銀坊主三一、九〇 一等白米一三、二〇

群山不動 月初警戒機하고 잇던東地는 今朝新甫의下鞘로賣作人氣가더하야 大口側도 欲觀態度로서 市中의出廻는 五輛이오 賣價는 一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三、六〇

大邱釘付 各地期米新甫는 秋收期接近의 豊作豫想으로 一齊下鞘로 發會되엿스나 地方의 水害로 被害가잇서 市中人氣는 依然 强硬하야 中間業者側으로 低價에는 賣惜하야 市勢不變이엿다 ㊀穀良二等三一、八〇 四等三一、三〇

釜山下落 天候의順調에 依하야서 全國的豊作豫想으로 各地期米의新甫는 下鞘이엿스나 市中의 出廻가 在米減少와 實地의大口所持側은 지난水害로 出廻치못하야 低價에는 所持側의 强硬으로 市勢前價同樣으로 下支이엿다 ㊀穀良二等三一、四五 四等三一、二五 一等白米一三、三九

木浦底堅 在米減少로 低價에는 賣物이업고 內地로부터의 注文도 多少散見되여 各地期米의 一齊新甫下鞘에도 軟化되지안코 月初의 入注期待人氣로 市勢는 前價同樣의 底堅이엿다 ㊀銀坊主三一、二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一三、九五



期米 株式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京城 仁川 益 金益證券 益康

重石 高價買入 東明商會 京城府鍾路二丁目一四一 電話光化門③九七六番

海外經濟 (三十日)

[illegible]

銀行券 (三十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鰯油粕 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仁川正米◆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況◆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一日)

[illegible]